HANSAE YES24 HOLDINGS

HANSAE fashion worldwide

C&T COLOR & TOUCH

HS Sourcing

HANSAE MK

yes24

동아출판

YES24 LIVE HALL

YNK MEDIA

STYLE24

BOOKPAL

studio YESONE

ARTIPIO

HANSAE:IN VOL. 037

HANSAE QUARTERLY MAGAZINE

HANSAE:IN

HANSAE QUARTERLY MAGAZINE
ISSN 2636-0551

VOL. 037

CONTENTS

HANSAE QUARTERLY MAGAZINE
VOL.37

SPECIAL THEME

03 **편집자글**
순간의 특별함을 기록해보세요

04 **한세인 칭찬릴레이**
HANSAE:IN 칭찬릴레이

06 **한세예스24홀딩스 보도자료**
한세예스24홀딩스 보도자료

10 **한세실업 보도자료**
한세실업 보도자료

16 **한세예스24문화재단 보도자료**
한세예스24문화재단 보도자료

20 **서명은 교수의 과학이야기**
마법의 폴리페놀

24 **신재현의 마음을 살피는 기술**
내향적 성향이 살아남는 법

28 **이용재의 미식 에세이**
아이스크림의 세계

32 **PGA TOUR & LPGA GOLFWEAR**
PGA TOUR & LPGA 골프웨어 후원,
배소현 생애 첫 우승

42 **BUKAROO**
버커루, 배우 이동휘와 함께한 24 여름 화보 공개

46 **NBA**
일상복이 된 스포츠 유니폼..
올여름 블록코어의 바람이 분다

50 **NBA KIDS**
NBA키즈, 슈즈 컬렉션 판매 호조.. 전년 대비 117% 증가

56 **모이몰른**
모이몰른, 론칭 10주년 맞이 브랜드 캠페인

62 **플레이키즈프로**
플레이키즈프로 플키매니아

64 **리바이스키즈**
리바이스키즈매거진

70 **컬리수**
LOVE EARTH KEEP CLEAN!

74 **요리요정 이팀장의 레시피**
무더위를 날려버릴 여름 제철 음식

78 **대동맛지도**
입맛 자극! 대동맛지도

80 **예스24 보도자료**
예스24 보도자료

86 **책읽아웃**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기억에 남는 책들

88 **문화다방**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문화다방
미술시장 용어가 어렵나요?

92 **김진효 변호사의 ESG**
기업의 친환경 활동과 그린워싱 주의보

96 **동아출판 보도자료**
동아출판 보도자료

발행일: 2024년 8월 **창간일:** 2014년 7월 **등록번호:** 영등포, 바00169 **발행인:** 김동녕 **편집기획:** 홍보팀
인쇄: 동아출판 **편집디자인:** (주)대통기획 | 한세예스24홀딩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6층 T. 02)3779-0800

HANSAE:IN은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특별함을 기록해보세요

초등학교 때 이후론 쓰지 않던 일기를 얼마 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그날그날 처리해야만 하는 과업을 처리하며
하루를 보내다 보면 일주일, 한 달, 계절, 1년이 지났을 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며 살았는지 희미해지죠.
휴대폰 속 작은 메모장에라도 틈틈이 하루의 감정을 기록해보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와 함께한, 설렘으로 가득 찼던 시간. 나 혼자 보낸 사색의 시간.
그 기억 속의 수많은 특별한 순간이 사라지는 게 아쉽다면요.

편집자 이상은

HANSAE:IN 칭찬 릴레이

THANKS TO
영업관리팀 김소영 대리

자 기 소 개 안녕하세요. 한세엠케이 회계팀 이가영입니다.
칭찬 주인공 한세엠케이 영업관리팀 김소영 대리님을 칭찬합니다. 영업관리팀과 회계팀은 유관된 업무가 많은데 항상 친절하고 성심성의껏 자료를 찾아주시고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결산과 같은 바쁜시기에도 막힘없이 일을 처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셔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말 더운 날들이 계속 되는데 모두 건강 챙기시고 다가오는 하반기도 모두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THANKS TO
IT팀 조정연 팀장

자 기 소 개 안녕하세요? 동아출판 재경팀 회계파트 김다윤입니다.
칭찬 주인공 IT팀의 조정연 팀장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조정연 팀장님께서는 매 결산 시기마다 재경팀에 큰 도움을 주십니다. 회계 프로그램상의 오류나 결산 프로세스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IT팀에 협조 요청을 드릴 때가 많은데 팀장님께서는 매번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시해주십니다. 또한 작업에 어려움은 없는지 먼저 여쭤봐 주시면서 결산 업무가 수월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써 주시고 계십니다. 재경팀 뿐만 아니라 전사 직원이 원활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조정연 팀장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항상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고 하반기에도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THANKS TO
HCM물류 & HCM회계팀 김정웅 책임

자 기 소 개 안녕하세요, HCM물류팀 이한나입니다.
칭찬 주인공 제가 칭찬 드리고 싶은 분은 HCM물류와 HCM회계를 담당하시는 김정웅 책임님입니다. 매번 아낌없이 주시는 조언과 베트남 꿀팁들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물류/회계 분야에서의 전문성 덕분에 직원들과 회사 사람들의 질문에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문제 해결 방안도 뛰어나십니다. 물류와 회계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소화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만큼 쌓인 능력에 박수와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특히 물류 관련 깊은 이해와 베트남 능력 덕분에 앞으로도 자주 여쭤볼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저도 호치민 파견 기간 동안 긍정적이고 업무 전문성을 더욱 키워나가는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말 모두 안전하게 여름 보내시고 장마철 조심하세요!

THANKS TO
경영분석1팀 서몽규 인턴

자 기 소 개 안녕하세요, 경영분석1팀 박보윤입니다.
칭찬 주인공 서몽규 인턴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신입은 존재만으로도 팀에 빛이 되는 존재인데, 서몽규 인턴은 팀에 활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타고난 꼼꼼함과 성실함으로 담당 업무까지 정말 잘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팀 구성원 변경이 많아 자칫 혼란스러울 수 있었겠지만, 중심을 잘 잡고 1인분 이상을 훌륭히 해내며 팀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무덥거나 비가 퍼붓는 날에도 어김없이 새벽 운동을 하고, 점심시간을 쪼개어 언어 교육도 듣는 체력과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고 싶은 말 서몽규 인턴이 우리 팀에 조인하게 되어 모두들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THANKS TO
예스24 도서사업본부 기프트파트 김현경 대리

자 기 소 개 안녕하세요. 예스24 디지털사업본부 eBook팀 곽수진입니다.
칭찬 주인공 예스24 도서사업본부 기프트파트 김현경 대리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회사 생활 하다가 잘 모르겠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문의드리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친절하게 알려 주셔서 업무에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일하는 팀은 다르지만 나도 저렇게 일해야겠다는 자극과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뿜는 대리님 모습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하고 싶은 말 2024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정신 차려 보니 벌써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모두 힘내시고, 원하시는 일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THANK YOU ALL!

[대한민국 100대 CEO] 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
‘패션’은 기본 이젠 ‘문화’까지 넘본다

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

연간 매출만 2조7800억원. 패션과 교육, 유통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혀가는 중견기업이 있다. 의류 OEM·ODM 업체 ‘한세실업’, 전자상거래 업체 ‘예스24’ 등을 그룹사로 둔 한세예스24홀딩스다. 지난해도 한세예스24홀딩스의 연결 기준 매출은 2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특히 경기 침체로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상황에서도 영업이익률을 전년 대비 개선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성공 신화를 써나가는 한세예스24홀딩스 뒤에는 한세실업 창업자인 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의 히스토리가 자리한다.

김 회장의 경영 철칙은 ‘한 걸음 늦게 가자’다. 남보다 늦게 가자는 것이 아닌, 내 실력보다 한발 늦게 가자는 뜻이다. 회사가 갖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마음만 앞서가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니, 차근차근 회사 역량을 키워가자는 의미다. 김 회장의 경영 철학은 해외 현지 친화 정책에서도 읽힌다. 국내 의류 제조원가가 상승하던 시기에 김 회장은 과감히 해외 생산기지로 눈을 돌리는 전략을 취했다. 1986년 사이판에 첫 해외법인 설립을 계기로 김 회장은 본격적으로 한세실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무작정 생산을 재촉한 건 아니다. 사이판과 베트남, 니카라과 등 한세실업이 진출하려는 지역의 사회적 인프라를 먼저 파악해 부족한 상하수도 시설이나 학교, 도서관 등을 건립하고 현지인들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했다.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에는 이들 국가와의 문화 교류도 주선하고 있다. 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아시아 각국의 다채로운 미술 작품을 국내에 소개하는 ‘국제문화교류전’을 꾸준히 개최 중이다. 2023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최하지 못했던 전시회를 재개, 말레이시아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말레이시아를 품다’ 미술전을 진행했다. 이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밑바탕에는 확실한 사업 성과가 존재한다. 한세예스24홀딩스는 올해도 성공 신화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한다. 한세실업은 상품 단가가 높은 ‘액티브웨어’ 상품군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세엠케이는 자체 브랜드인 모이몰른의 일본 인기에 힘입어 매장 확대에 나서는 등 해외 진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VISION

“세계인의 패션과 문화를 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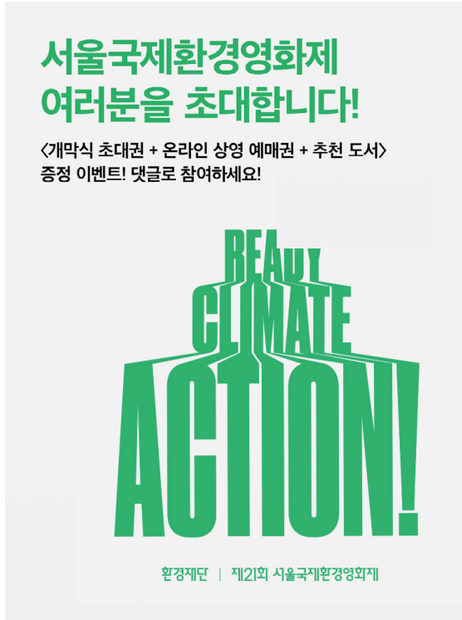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억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매출액	2조 7988	3조 3221	2조 7807
영업이익	1346	1928	1897
당기순이익	758	494	1114

한세예스24홀딩스, ‘세계 환경의 날’ 맞아
제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후원

– 한세예스24홀딩스, ESG 경영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울국제환경영화제 후원

– 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조직위원 위촉…SNS·유튜브 등 통한 홍보 지원 나서



한세예스24홀딩스가 예스24 SNS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서울국제환경영화제 홍보를 지원했다.

한세예스24홀딩스(대표 김동녕, 김석환)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제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에 현금 후원과 영화제 홍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04년 시작된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매년 세계 환경의 날에 맞춰 진행되는 세계 3대 환경 영화제다. 해당 영화제는 당면한 환경 문제를 다룬 국내외 우수 작품들을 소개해 환경 감수성을 깨우고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영화제는 ‘Ready Climate Action, 2024’를 슬로건으로, 총 27개국이 출품한 80편의 환경 영화를 상영한다. 한세예스24홀딩스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 서울국제환경영화제를 후원했다. 특히 올해는 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이 영화제 조직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된 만큼, 한세예스24홀딩스의 자회사인 예스24 SNS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영화제 홍보 지원도 나섰다. 지난달 30일 예스24 유튜브 채널에서 줄리안 퀸타르트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국제 환경영화 부문 심사위원이 환경 관련 도서 3종을 소개하고 시청자들에게 영화제 초대권을 증정하는 콘텐츠를 공개했다. 해당 콘텐츠에 댓글을 남긴 시청자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온라인 영화 상영권을 제공했다. 지난달 14일부터 26일에는 예스24 SNS 채널을 통해 환경재단이 선정한 환경도서 6권에 대한 소개 및 영화제 초대 등 이벤트도 진행했다. 선정된 참여자 30명에게는 영화제 개막식 초대권과 온라인 상영 예매권, 환경재단 추천도서 등을 증정했다.

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은 “세계 3대 환경영화제인 서울국제환경영화제를 후원하게 되어 기쁘다”며, “한세예스24홀딩스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노력을 지속하는 만큼, 영화제를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도록 적극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세예스24홀딩스는 2009년 한세실업의 인적분할을 통해 사업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사업부문을 전담하는 지주회사로 설립됐다. 의류 ODM·OEM 부문의 한세실업과 원단 부문의 칼라앤터치, 브랜드 리테일 부문의 한세엠케이와 출판/문화 콘텐츠 부문의 예스24와 동아출판 등 자회사를 두며 전 세계 패션과 문화 콘텐츠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세예스24그룹,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한세실업 '2024년 상반기 ESG 베스트 컴퍼니' 선정

- 한세예스24그룹, 올해 3번째 그룹 통합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한세실업 해외 법인 대상 온실가스 제3자 검증, 한세엠케이 친환경 상품 가이드라인 제정 공시
- 한세실업, 국내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 상반기 평가서 '2024년 상반기 ESG 베스트 컴퍼니' 선정

2024 한세예스24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세예스24그룹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와 전략을 담은 '2024 한세예스24 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세예스24그룹은 지주사인 '한세예스24홀딩스'를 중심으로 글로벌 의류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기업 '한세실업', 글로벌 패션 기업 '한세엠케이'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올해 보고서엔 그룹 내 주요 3개 회사가 'Towards Sustainable Future(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라는 ESG 비전 아래 실시한 ESG경영 성과를 수록했다. 먼저 한세실업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친환경 에너지원 사용,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구매 등을 통해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8.1% 절감했다. 또, 폐기물 감축을 위해 자체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햄스(HAMS·Hansae Advanced Management System)'를 기반으로 생산공정을 디지털화하고 자동화 설비를 구축해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한세실업은 온실가스 데이터에 대한 제3자 검증을 통해 대외적인 신뢰도를 제고했다. 한세엠케이는 최근 대두되는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표이사 산하 기구로 '환경경영위원회'를 구축하고 '친환경 상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한세엠케이는 모이몰른, 리바이스키즈, 컬리수 등 각 브랜드 별 지속가능한 소재를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2023년 한세엠케이의 친환경 상품 생산금액은 2022년 대비 249%, 매출액은 142% 증가했다. 한세엠케이는 2030년까지 친환경 소재 상품 비율을 전체 상품의 3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주사인 한세예스24홀딩스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배당절차 개선, 중장기 배당정책 수립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세실업은 지난 6월 국내 ESG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ESG 베스트 컴퍼니(ESG Best Companies)'에 선정됐다. 국내 상장사 1,072 곳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한세예스24홀딩스는 전체 등급에서 A등급을, 한세실업은 전체 및 규모등급 모두 AA등급, 한세엠케이는 규모등급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김석환 한세예스24홀딩스 부회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경영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한세예스24그룹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라는 비전 아래 주요 계열사 모두 지속적으로 ESG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사회 중심 경영활동을 지속하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전 계열사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2024 한세예스24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한세예스24홀딩스를 비롯 각 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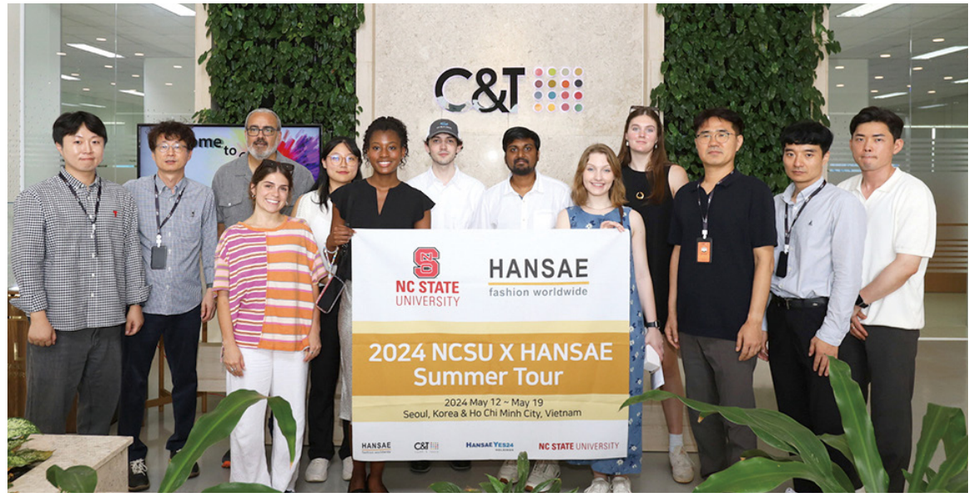
HANSAE
fashion worldwide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계인의 패션문화를 선도합니다.

한세는 국내 3개 계열사, 해외 32개 법인을 통해 2023년 기준 패션 부문 매출 2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한세실업, 한세 VN, 한세 TN, 한세 TG, 한세 호찌민, 한세 하노이, 한세 다낭 오피스, 한세 탄 호아 오피스, 한세 껀터 오피스, 한세 인도네시아 우타마, 한세 인도네시아 우타마-마잘렝카, 한세 솔로 오피스, 보민 페르마타 아바디, 한세 인도네시아 숙세스, 한세 스마랑 오피스, 한세 인터내셔널, 한세 피놀라, HS 어패럴, 한세 GSN, 한세 아이티, 한세 미얀마, 한세 바고, 어패럴 매뉴팩처링 파트너스, 한세 뉴욕 디자인 오피스, 한세 벤톤빌 오피스, 한세 캘리포니아 오피스, 한세-유럽, 스페인 오피스, 칼라앤터치, C&T VINA, C&T G-TECH, 한세엠케이, 한세엠케이 만쿤(상하이)상무유한공사, 한세 드림 가해수복식상해유한공사, 한세드림 재팬, C&T HCM, 한세 AALFS DOS, 한세 TGGM

한세실업, '업계 최초' 북미권 패션 명문 대학생
베트남 현지 공장 투어 실시

– 한세실업, 세계 섬유 1위 단과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NCSU) 윌슨 칼리지 학생 초청 베트남 생산공장 견학
– 윌슨 칼리지 학생들 "한국 패션 테크 기업 기술력 직접 확인한 뜻 깊은 시간, 한세실업 인턴십 지원"



미국 명문대 학생들이 한세실업의 C&T VINA 오피스에 방문하여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글로벌 패션 ODM기업 한세실업(대표 김익환, 김경)이 세계 최고 수준의 패션 명문대 학생을 베트남 현지 공장에 초청해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세실업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섬유 단과대학 '윌슨 칼리지' 학생들을 베트남 공장에 초청해 섬유 생산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한세 썸머 투어(Summer Tour of Hansae)'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윌슨 칼리지'는 패션과 섬유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문 단과 대학이다.

북미권의 패션 전공 대학생들이 한국 기업의 생산 공장을 직접 찾아 면밀히 견학한 건 업계 최초다. 세계 섬유산업의 인재로 성장할 북미권 학생들이 한국의 우수한 섬유 산업 현장을 견학했다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세실업의 '한세 썸머 투어' 견학 프로그램은 지난 2019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NCSU) 윌슨 칼리지와 한세실업이 맺은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세실업은 지난 2월 '2024 윌슨 칼리지 봄 커리어 페어(Wilson College of Textiles Spring 2024 Career Fair)'에 3회째 참여해 '한세 썸머 투어'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했다. 윌슨 칼리지에 재학 중인 많은 대학생들이 지원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가운데 한세실업은 서류 심사와 화상 인터뷰 등을 거쳐 최종 8명을 선발했다. 한세 썸머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8명의 윌슨 칼리지 학생들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한세실업 본사에서 영업, R&D, QA등 다양한 부서를 견학하며 큰 흥미를 보였다. 14일 서울에서 베트남으로 출국한 학생들은 15일부터 17일까지 한세실업의 자동화 기술이 집약된 베트남 생산 공장을 견학했다. 한세실업의 원단 자회사인 C&T VINA를 비롯해 첨단 자동화 기술공장인 TG 공장, 호치민 중심가에 위치한 한세실업 HCM 오피스를 방문해 글로벌 ODM 산업의 현장을 경험하고, 한세실업의 섬유 제조 핵심 기술과 IT 기반의 패션 테크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국 명문대 학생들이 한세실업의 TG공장을 방문하여 의류 생산 공정을 체험하고 있다.

베트남 투어의 첫 순서로 학생들은 C&T VINA에서 원단 니팅과 염색, 프린트 공정에 이르는 의류 생산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바이오매스 보일러시스템, 역삼투압 시스템 등을 살펴봤다. 한세실업은 2013년 베트남 염색 공장 C&T VINA를 인수한 후 2014년 원단 전문기업 '칼라앤터치'를 설립, 염색 및 가공, 원단 중개, 봉제 및 제조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를 구축했다. 학생들은 이어 한세실업 베트남 TG 공장을 방문해 의류 생산 자동화 시스템과 행거라인 시스템, 무인 자동배송로봇(AGV), 스마트 테크 시스템 기술인 HAMS 2.0 등을 경험하며 IT 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제조 환경을 체험했다. 마지막으로, 네슬레와 같은 다국적기업과 함께 위치한 호치민 중심가의 한세실업 HCM 오피스에서 3D 디자인 기술 구현을 비롯해 다양한 3D 디자인 샘플을 살펴보며 한세실업의 차별화된 3D 디자인을 경험했다. 한세실업은 2017년 국내 의류 업계 최초로 버추얼디자인(VD)팀을 구성해 실물 원단의 질감과 무늬, 컬러감 등을 정교하게 구현한 가상 샘플을 선보이며 샘플 원단의 폐기물과 샘플 전달 시 소요되는 포장재, 운송 연료 등 발생을 줄이고 있다. 학생들을 인솔해 이번 한세 썸머 투어에 참가한 윌슨 칼리지의 안드레 웨스트 교수는 "K-패션의 우수한 기술력이 집약된 생산 현장을 학생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어 뜻 깊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투어에 참가한 8명의 윌슨 칼리지 학생들은 모두 "향후 한세실업에서 인턴십을 모집하면 꼭 도전하겠다"며 입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은 "북미권의 패션 명문 대학생들이 한국 기업의 원단 및 의류 생산 현장을 직접 견학하며 뛰어난 패션 테크 기술력을 경험했다"며 "이런 투어를 꾸준히 실시해 세계적인 패션 전공 인재를 한세실업에 적극 영입하고 진정한 글로벌 패션테크 선도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세실업은 미국,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니카라과, 과테말라, 아이티 등 전 세계 9개국에서 22개 법인 및 10개 해외 오피스를 운영하는 글로벌 ODM 기업이다. 전 세계 5만여 명이 한세실업에서 근무하며 월마트, 타겟, GAP 등 전 세계 유명 브랜드 의류를 생산 및 납품하고 있다. 이번 북미권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베트남 견학 프로그램 체험 과정은 5월 27일 KBS 2TV 생생정보를 통해 방영됐다.

부활하는 한세실업…
美 갭 '올해의 공급업체'로 선정

– 스마트공장·중미 시설 투자로 지난해 소비침체·재고 위기 극복
– 석탄 사용 중단 등 ESG도 힘써
– 1분기 실적 반등…하반기도 기대

한세실업이 지난 5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갭 본사에서 열린 행사에서 '2024 올해의 공급업체(2024 Supplier of the Year)' 상을 수상했다.
왼쪽부터 샐리 길리건 갭 최고 공급망 책임자, 차석만 한세실업 본부장, 김경 한세실업 대표, 리처드 딕슨 갭 CEO.

의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기업인 한세실업이 본격적인 실적 부활에 시동을 걸고 있다. 글로벌 소비침체 속에서도 스마트 공장 전환과 중남미 투자 확대로 대응하며 의류 브랜드 갭(GAP) 등 주요 거래처로부터도 최고의 파트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세실업이 지난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갭 본사에서 열린 행사에서 '2024 올해의 공급업체(2024 Supplier of the Year)' 상을 수상했다. 한세실업이 갭의 '올해의 공급업체'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세실업은 1991년부터 갭과 협력해 올드네이비, 바나나리퍼블릭 등 갭의 다양한 브랜드 의류를 생산 중이다. 현재 갭의 최대 규모의 공급업체로 성장했다. 베트남과 과테말라 등 전 세계 생산공장에서 갭의 사업을 전담하는 직원만 한국인 87명, 외국인 160명에 달한다. 우수한 품질과 납기 단축으로 갭으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자라, 랄프로렌 등 글로벌 캐주얼 브랜드들과도 꾸준한 거래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주요 거래처인 미국 유통업체 타겟(Target)도 2002년과 2007~2011년 연속으로 한세실업에 '우수 파트너 상(Award of Excellence)을 수여한 바 있다. 갭이 한세실업을 최고의 파트너로 평가한 배경에는 최근 공장 자동화 및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지속가능성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실적이 있다. 갭은 한세실업의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햄스'와 다양한 ESG 활동 등 자동화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투자를 높게 평가했다. 리처드 딕슨 갭 최고경영자(CEO)는 시상식에서 "한세실업은 벤더(파트너)의 성과를 평가하는 척도에서 최고 등급인 'Gold' 등급을 달성했다"며 "특히 2025년까지 석탄 사용의 단계적 중단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한세실업 메인 공장의 경우 이미 석탄 사용 0%를 달성했으며, 일부 석탄을 사용 중인 하청공장을 대상으로 석탄 사용을 중단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실시간으로 생산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인 '햄스(HAMS)'를 도입해 생산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원부자재 입고부터 재단, 봉제, 완성을 비롯해 박스에 담는 패키징과 출고 등의 공정을 자동화한 것이다. 한세실업은 중미 지역의 시설 투자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중미는 동남아 사업장과 달리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납기를 맞추기 용이하다. 한세실업은 중미 지역에 염색 및 가공부터 원단 중개, 봉제 및 제조까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는 원단 복합단지를 설립해 기존 베트남 사업장과 시너지를 낼 방침이다. 중미 생산 비중을 지금의 20%에서 내년 25%, 2026년 30%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한세실업은 단순히 수주를 받아 생산·제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래처의 신제품 개발 등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뉴욕 디자인 오피스를 통해 갭의 컬렉션 개발 및 기획, 트렌드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한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은 "이번 수상은 한세실업이 갭의 제1의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받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며 "앞으로도 갭과 한세실업이 장기적인 목표를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세실업은 수익률이 좋은 우븐과 액티브웨어 의류 비중이 늘고 스마트팩토리로 생산 효율성이 높아진 것이 실적 회복에 보탬이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3분기부터 패션업계 성수기가 시작되고 글로벌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햄스'와 원단과 작업물 등을 운반해주는 로봇이 있다.

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 'AIB' 섬유 리더상 수상…

한세실업, 글로벌 패션 기업 대표로 글로벌 성공 사례 발표

–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 2024 AIB 섬유 리더상 수상

– 한세실업, 'AIB 2024 서울'서 국내 섬유·패션 업계 대표로 '특별 강연' 현지화 전략 발표

– 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 "지속적 투자 및 해외 사업 확장으로 최고의 글로벌 패션 테크 기업 자리매김"

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이 '2024 AIB 섬유 리더상'을 수상했다

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이 세계 최고 권위의 경영학술단체인 '국제경영학회(AIB)'가 수여하는 '2024 AIB 섬유 리더상(Textile Leader Award)'을 수상했다. '2024 AIB 섬유 리더상'은 글로벌 섬유 업계에서 활약한 경영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AIB 2024 Seoul'은 국제경영학회의 연례 학술 대회로 지난 2일부터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피터 리쉬(Peter W.Liesch) 국제경영학회 회장과 개리 나이트(Gary Knight) 차기 회장 등 97개국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제경영의 역동성'을 주제로 관련 논문 2천여 편을 발표한다.

국제경영학회(AIB,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는 미국 미시건주에 본부를 둔 국제경영 분야 최대 규모의 학회로, 국제경영 분야 관련 연구와 국가 간 학술 교류, 세미나 활동 등을 전개한다. 저명한 학자와 글로벌 업계 관계자 등 전 세계 90여 개국 3,400여 명 이상의 전문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IB 2024 서울'에 초청받은 한세실업은 김익환 부회장의 수상과 특별 강연 참여의 영예를 안았다. 한세실업은 'Hansae : Fast Fashion Globalization to Glocalization'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해당 강연에서 한세실업이 50년간 쌓아 온 글로벌 진출 및 현지화 전략 사례를 소개했다. 또, 글로벌 패션 테크 선도 기업으로서 패션 업계에 대한 비전과 다양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이외에도 한세실업은 29년 만에 서울에서 진행된 '2024 AIB 서울' 개최를 기념해 자체 디자인·제작한 에코백, 우산, 티셔츠 등을 참석자 기념품으로 제공했다.

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은 "한세실업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스마트 공정시스템 '햄스(HAMS)'를 도입한 것을 비롯해 베트남 법인을 중심으로 3D 가상 샘플 등을 본격화하며 IT 기술 기반의 공정 자동화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지속가능성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해외 사업 확장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 패션 테크 선도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세실업은 미국,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니카라과, 과테말라, 아이티 등 9개국 20개 법인, 10개 해외 오피스를 운영하며 월마트, 타겟, GAP 등의 전 세계 유명 브랜드의 의류를 생산해 납품하고 있는 글로벌 패션 전문기업이다. 지난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갭 본사에서 열린 행사에서 '2024 올해의 공급업체(2024 Supplier of the Year)'로 선정되며 우수한 품질과 생산성을 인정받았다.

‘요로감염 미생물 최초 원인 분석’

한세예스24문화재단 ‘제31회 의당학술상’ 최민혁 교수 선정

– 최민혁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 ‘요로감염 미생물 최초 원인 분석으로 요로감염 진단 방법 개발’로 의당학술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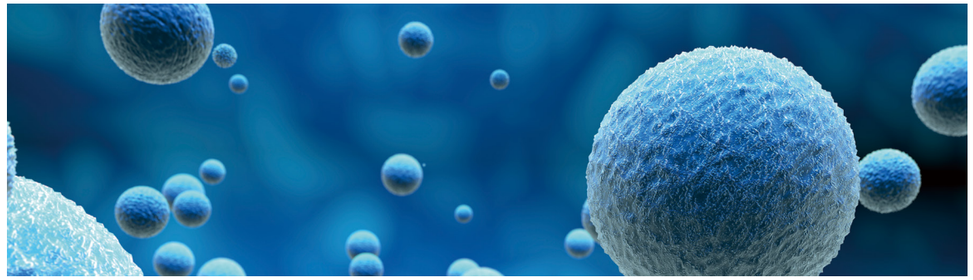
– 백수미 한세예스24문화재단 이사장 “앞으로도 의학계의 신진 연구자들 발굴해 꾸준히 지원 이어갈 것”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진행된 의당학술상 시상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세예스24문화재단이 ‘제31회 의당학술상’ 수상자로 최민혁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의당학술상은 진단검사의학의 개척자인 고(故) 의당 김기홍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한세예스24문화재단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권위 있는 의학상으로, 올해 서른 한 번째를 맞았다. 매년 학술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낸 의학자를 선정해 상장과 함께 총 3,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제31회 의당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된 최민혁 교수는 ‘요로감염 원인 미생물이 혈류감염으로의 진행에 미치는 영향: 성향점수 일치 분석(Impact of urinary tract infection–causative microorganisms on the progression to bloodstream infection: A propensity score–matched analysis)’ 논문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상식은 지난 28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진행됐다. 이번 논문을 통해 최민혁 교수는 고령화와 방광에 삽입하는 관인 요로 카테터(관 모양으로 구성된 의료 소모품) 사용 빈도 증가 등으로 지난 10년간 칸디다균에 의한 요로감염 비율이 급증했으며, 칸디다균 요로감염이 다른 원인균보다 치명률이 높은 2차 혈류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에는 요로감염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특허를 출원했다. 최교수가 개발해 낸 진단 기술은 요배양검사와 자동화 소변검사로 2~3일 걸리던 요로검사를 1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요로감염증의 빠른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최민혁 교수는 “의당학술상이라는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 고 의당 김기홍 박사님이 한국 의학사에서 큰 역할을 해주신 덕분에 지금의 제 연구가 가능했다”며 “인공지능과 결합한 새로운 진단 지표 도입으로 검사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난치성 감염병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연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백수미 한세예스24문화재단 이사장은 “요로검사라는 새로운 진단의학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훌륭한 의학인을 선정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신진 연구자들을 발굴해 의학계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故) 의당(毅堂) 김기홍 선생은 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의 부친으로, 서울의대 1회 졸업생이자 국립중앙의료원 창설 멤버다. 국내 1세대 진단의학을 대표하는 연구자인 의당 김기홍 선생은 대한혈액학회장, 대한병리학회장, 대한의학협회 부회장, 대한임상병리학회장, 대한수혈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지난 2014년 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사회 공헌 재단으로, 부친인 의당 김기홍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진단검사의학, 혈액학, 기초의학 등 학술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낸 의학인을 발굴해 선정하는 의당학술상을 제정·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아시아 각국이 경제협력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학생 해외 봉사단 운영을 비롯해 외국인 유학생 장학 지원, 인문학연구지원사업, 의당장학금 등의 학술 지원을 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의 유망한 작가의 작품을 발굴해 국내에 소개하는 미술전을 비롯해 국내 최초로 동남아시아문학총서 시리즈를 번역하여 출간하는 등 국내와 해외를 아우르는 문화예술 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세예스24문화재단,
‘제22기 외국인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 진행

– 아시아·아프리카·남아메리카 등 8개국 8명 신규 장학생 선발…누적 장학생 130여 명 달해

– 백수미 한세예스24문화재단 이사장 “전 세계 곳곳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힘쓸 것”

한세예스24문화재단이 24일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한세예스24문화재단(이사장 백수미)이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대학원생들에게 2024년도 상반기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세예스24문화재단의 제22기 외국인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은 24일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백수미 한세예스24문화재단 이사장 및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콜롬비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베트남, 대만 등 8개국 출신 신규 장학생 8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이 전달됐다.

장학생들은 1인당 매학기 200만원씩 최대 5학기 동안 1,0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예정이다. 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외국 국적의 국내 대학원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외국인 장학생은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 등을 평가해 최종 선정된다. 지난 20여년 간 총 32개국, 약 130명의 외국인 학생이 한세예스24문화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전달받았다.

백수미 한세예스24문화재단 이사장은 “재단 설립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해 온 외국인 유학생 장학사업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생활비, 학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려는 우수한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지난 2014년 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재단으로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했다. 한국과 아시아 각국이 경제 협력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학생 해외 봉사단,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 지원, 아시아 국가 유망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미술전, 동남아시아문학총서 시리즈 출간, 학술연구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간의 한세예스24문화재단의 활동은 재단 홈페이지의 10주년 백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세예스24문화재단 조영수 명예이사장,
서울대 인문대학에 발전기금 1억 쾌척

– 한세예스24문화재단 조영수 명예이사장, 모교인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에 인문대학 기금 1억 기부

– 서울대학교 발전재단, 발전기금으로 인문대학 대학원생 연구 공간 확충 및 인문학 도서관 설치 사업 등 활용 예정

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조영수 명예이사장이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에 인문대학 발전기금 1억원을 쾌척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영수 명예이사장은 모교인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의 발전을 위해 기금을 기부했다. 기부한 1억원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증축 및 인문학 도서관 설립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은 조영수 명예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감사패 전달식은 30일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됐다. 전달식에는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강창우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장, 김기현 서울대학교 발전재단 부이사장, 이준환 서울대학교 발전재단 상임이사와 한세예스24문화재단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조영수 한세예스24문화재단 명예이사장은 1968년 서울대 문리과대학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피츠버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조 명예이사장은 1980년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에 임용된 이후, 조지 워싱턴 대학 방문 학자를 거쳐 2003년 경기대학교 유럽어문학부장을 지냈으며, 2006년 경기대학교 인문대학장, 2010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대학교 독어독문학과 명예 교수를 맡고 있다. 조 명예이사장은 2018년부터 5년 간 한세예스24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아 학술 연구 지원, 문화 예술 사업,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은 조 명예이사장은 2022년 국내 순수 인문학 연구자들에게 매년 총 1억 2,000만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인문학연구지원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다. 올해 3회째 이어지는 인문학연구지원사업은, 언어학, 문학, 철학, 역사, 미술사 등 다양한 인문학 분야를 연구하는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 또는 국내외 대학 강사·교수·연구소 소속 연구자 등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동문인 조영수 한세예스24문화재단 명예이사장님의 모교에 대한 애정과 공헌 덕분에 인문대학 대학원생들의 연구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오랜 숙원 사업인 인문학 도서관 설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기탁된 기금은 인문학 발전에 헌신할 인재를 양성하는 공간 마련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조영수 한세예스24문화재단 명예이사장은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모교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금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미래를 이끌어 갈 인문학자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2014년에 설립,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한국과 아시아 각국이 경제 협력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학생 해외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장학 지원, 인문학연구지원사업, 의당학술상, 의당장학금 등 다양한 학술 지원과 장학 사업 등을 이어가고 있다. 또, 아시아 국가의 유망한 작가의 작품을 발굴해 국내에 소개하는 미술전을 비롯해 국내 최초로 동남아시아문학총서 시리즈를 번역하여 출간하는 등 국내와 해외를 아우르는 문화예술 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

POLYPHENOL

마법의 폴리페놀

필자가 대학원 때로 기억한다. 후배가 동그란 검정 통에 들어 있는 초콜릿을 가져와서 권했다.
쓴맛의 초콜릿이 은근히 매력 있어서 직접 사먹었던 기억도 난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통에 커다랗게 쓰여있던 낯선 이름 때문이다.
대체 "폴리페놀"은 뭘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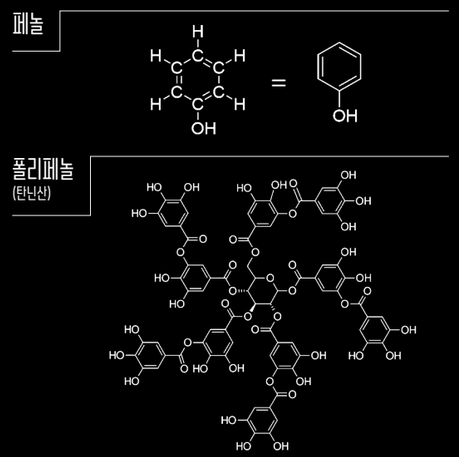
페놀과 폴리페놀

대학에서 화학과에 들어가면 보통 2학년 때 유기화학 시간에 방향족 고리에 하이드록실 기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의 화합물로 "페놀"을 배운다. 즉 벤젠에 물의 반쪽이 붙어있는 형태의 분자다.

음? 벤젠은 1급 발암 물질인데 그럼 페놀은? 페놀은 소량은 목이 아플 때 뿌리는 스프레이처럼 살균용 의약품으로 쓰이지만 많이 흡수되면 죽을 수도 있는 독성 물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낙동강에 페놀이 유출되어 큰 문제가 된 바 있다. 필자처럼 고분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폴리"라는 단어가 너무 친숙하다. 고분자를 영어로 "폴리머(polymer)"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반복단위(=mer)를 여러 개(=poly) 붙여서 고분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요즘 3D 그래픽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인 "폴리곤(polygon)"도 마찬가지로 각이 여러 개인 다각형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니 "폴리페놀"은 페놀이 여러 개 붙어 있는 화합물일까? 어떻게 페놀은 먹으면 안되는데 폴리페놀은 먹어도 괜찮은 걸까?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왜 몸에 좋다고 광고하는 것일까?

화학구조 그리기

페놀과 폴리페놀의 화학 구조를 아래 그림에 보였다. 먼저 위쪽의 페놀 구조를 보자. 유기화학에서는 구조를 그릴 때 가장 자주 나오는 원소인 탄소(C 원자)는 점으로 대신하고, 탄소에 연결된 수소(H 원자)는 생략한다. 그러니 그림에서 한 줄은 탄소–탄소 단일 결합이다. 모서리를 차지하는 탄소 입장에서 보면 각 탄소 원자는 네 개의 팔을 뻗어 다른 원자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연결된 선의 개수를 4에서 빼면 나머지가 해당 탄소 원자에 연결된 수소 원자의 개수가 된다. 모서리가 두 줄이면 탄소–탄소 이중 결합인 셈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육각형이 케쿨레가 뱀이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을 보고 깨달은 방향족 고리에 해당한다. 산소 원자에 수소가 두 개 붙어있으면 물(H2O)이고, 방향족 고리에 붙은 –OH는 하이드록실 기라고 부른다. 산소(O 원자)는 자주 나오지 않으니까 따로 표시하고, 여기 연결되어 있는 수소도 그려준다. 이렇게 해서 아래 그림이 나온다.



아래쪽에는 요즘 들어 더욱 유명세를 타는 분자로 와인의 쓴맛을 담당하는 탄닌산(tannic acid)을 예로 들어 폴리페놀 구조를 그렸다. 페놀에 비해서 훨씬 큰 분자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하이드록실 기의 숫자를 보면 가장자리에 있는 방향족 고리에는 고리당 하나가 아니라 세 개씩 붙어 있고, 하나 안쪽에 있는 고리에도 두 개씩 붙어 있어서 페놀보다 훨씬 많다. 폴리페놀이라는 이름은 방향족 고리에 하이드록실 기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특징을 가리킨다. 자연에 존재하는 폴리페놀들은 녹차에 들어있다고 해서 유명한 카테킨(catechin)처럼 페놀보다는 커도 엄청 커다랗지는 않은 분자도 있고, 탄닌산처럼 여러 개의 방향족 고리들이 서로 붙어서 거대한 분자를 이루는 경우도 많다. 탄닌산쯤 되면 고분자 친구라고 보아도 손색이 없다. 카카오에는 무게 기준으로 약 6–8%의 폴리페놀이 들어 있는데, 카테킨이 속하는 플라비노이드 계열의 화합물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폴리페놀은 카카오와 녹차처럼 주로 식물과 과일류에 함유되어 있고, 또 해조류에도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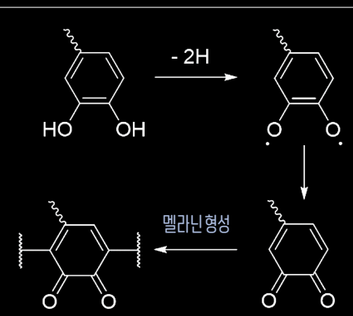
POLYPHENOL

활성 산소

폴리페놀의 역할로 주로 항산화 작용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꼭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활성 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ROS)이다. 산소 분자가 다른 물질과 반응해서 산소 원자를 넘겨주는 반응이 대표적 산화 반응이라면, 수소 원자를 넘겨주는 반응은 이와 반대되는 환원 반응이다. 그런데 산소를 포함하면서 산소 분자보다 반응성이 큰 과산화수소(H_2O_2 – 우리가 다치면 소독할 때 쓰는 거품나는 약!) 같은 분자들이 몸 안에서 생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분자들은 세포가 작동하는 기작을 조절하는 데 참여하지만, 어쩌다가 너무 많이 생기면 DNA를 공격해서 세포를 망가뜨리게 된다. 물론 우리 몸에는 항산화 시스템이 있어서 ROS가 많이 생기지 않게 처리하지만, 항상 문제라는 건 무언가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서 생기는 법이다. 따라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을 많이 섭취하면 ROS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이 동네의 대표적인 물질이 비타민 C이다. 다른 얘기지만 노벨 화학상과 평화상을 수상한 과학자로 유명한 라이너스 폴링은 감기 예방에 좋으니 비타민 C를 하루에 2 그램씩 먹으라고 했다고 한다. 본인은 93세까지 장수했지만 그게 비타민 C 때문인지는 모를 일이다. 하지만 최근 연구를 보면 COVID-19에 대항하는 데 비타민 C의 NO에 대한 항산화 능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기도 한다.

폴리페놀 또한 항산화 작용이 탁월한 물질이다. 방향족 고리에 붙어 있는 저 많은 하이드록실 기들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산화성이 높은 물질을 만나면 폴리페놀은 하이드록실 기의 수소를 넘겨주면서 자신이 쉽게 산화되어 퀴논(quinone) 형태로 변화한다. 자신이 먼저 희생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다른 분자가 ROS에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다고 많이 먹으면 갑상선 호르몬의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 뭐든지 과한 건 부족함만 못한 것 같다.
폴리페놀의 산화 반응은 일상 생활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 사과를 깎아 놓으면 갈변되는 이유가 사과 안의 폴리페놀이 효소에 의해 산화되면서 퀴논 형태로 변하기 때문이다. 퀴논들은 서로 쉽게 결합할 수 있고 길어질수록 색깔이 짙어져서 갈색으로 변한다. 우리 몸에서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기작도 비슷하다. 피부가 검어진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멜라닌은 아마도 피부암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즉 ROS는 자외선을 많이 쬐면 더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 피부에서 멜라닌이 만들어져서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함으로써 세포 속에서 ROS가 많이 생기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다.

폴리페놀의 항산화 작용
(카테콜)



어디나 달라붙는 폴리페놀

도자기 잔에 홍차를 따라 마시기를 오래 하다 보면 표면에 갈색 얼룩이 생겨서 없어지지 않는 일이 생긴다. 와인을 하얀 순면 와이셔츠에 흘리면 자주색 얼룩을 빼기 어렵다. 이것도 폴리페놀 때문으로, 와인에 들어있는 타닌산이 대표적이다. 도자기나 면의 표면은 물과 친한 친수성 특성을 지녀서 하이드록실 기와도 친하므로, 하이드록실 기가 여러 개 달린 폴리페놀은 더할 바 없이 잘 달라붙는다. 신기하게도 폴리페놀은 물과 안 친한 소수성 표면에도 붙는다. 와인을 마시면 쓴 맛을 바로 느낄 수 있는 이유가 탄닌산이 혀 표면의 소수성 단백질에도 잘 달라붙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방향족 고리와 소수성 표면 사이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단 한번 붙고 시간이 지나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폴리페놀들이 서로 붙게 되면 표면에 꽉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된다. 이 접착력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생물이 홍합이다. 바위 표면에 족사를 뻗어서 몸을 붙이는 메커니즘을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디하이드록시 페닐알라닌(dihydroxy phenylalanine, DOPA)이라는 폴리페놀 분자가 미끌미끌한 표면에도 붙을 수 있는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어 다른 과학자들이 DOPA 분자를 물에 녹인 다음 원하는 물체를 담갔다 꺼냈더니 물체 표면이 폴리DOPA로 코팅되는 것을 보고 친수성 표면과 소수성 표면을 모두 코팅할 수 있는 기술로 개발했다.
이 기술은 성질에 관계없이 다양한 표면에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번 코팅된 표면의 표면 또한 폴리페놀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분자들을 한번 더 올려서 쓰임새에 맞는 다양한 표면 성질을 구현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코팅 기술을 비롯해서 폴리페놀 연구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대표적 석학이 카이스트 화학과의 이해신 교수다. 이 교수는 폴리페놀을 이용해 조직을 붙일 수 있는 접착제, 혈관을 빠르게 붙이는 지혈 패치, 찌른 다음 빼면 이미 붙어서 피가 나지 않는 주사 바늘 등등을 선보인 바 있다. 갈변 현상을 응용해 머리를 감는 것만으로도 흰머리 색깔을 점점 갈색으로 바꿔주는 샴푸는 새치 염색에 지친 사람들에게 크게 어필했고, 이어 개발한 제품으로 폴리페놀이 코팅되면 머리카락이 뻣뻣해지는 현상을 이용한 볼륨 리프팅 샴푸도 반응이 좋다. 이해신 교수의 다음 샴푸는 무엇일지 필자도 궁금하다.

머리 심는 폴리페놀 접착제

이해신 교수는 필자를 모발의 세계에 인도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해신 교수가 개발한 생체조직용 폴리페놀 접착제를 좀더 강력하게 만들 수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공동연구를 시작한 결과, 모두 생체친화적인 물질을 쓰되 두 종류의 고분자를 조합함으로써 훨씬 단단한 접착제를 만들 수 있음을 알았고 심지어 열처리를 해주면 더욱 단단해지는 특이한 성질을 보이는 것도 알아냈다. 그러나 상온에서는 흐름성이 낮은 탓에 어디에 적용해야 할지 한동안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이 교수는 온도를 올려서 접착제를 말랑말랑하게 만든 다음 머리카락 끝에 묻히고 두피에 심는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시연해 보였다. 두피에 심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온도가 적당히 식기 때문에 열처리가 되는 셈이고, 단단해진 접착제는 머리카락과 두피를 꼭 잡아주게 된다. 생체적합성 물질이니 2주면 분해되고 염증을 일으킬 일도 없다. 쥐 엉덩이에 실험해 본 결과 정말 이렇게 만든 경우에만 심은 채로 제법 버티는 결과를 얻었다. 물론 모낭을 통째로 옮겨 심는 자금의 모발 이식에 비해 머리카락을 잘라 접착한 것이다 보니 자라지는 않지만, 시술 후에 다시 머리카락이 빠져서 더 이상 옮길 모낭이 없을 때 답이 없는 현재 기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 일을 논문으로 발표했더니 방송 인터뷰는 물론이고 정말 여러 곳에서 연락을 받았다. 지금까지 필자가 해왔던 연구 중에 가장 대중적인 관심을 끌었던 일이 아닌가 싶다. "정말 되면 노벨 평화상이 멀지 않았다"는 평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호기심에 차서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 과학자의 본분이겠지만,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꿈꾸는 것도 그만큼이나 중요한 과학자의 몫이 아닐까? 이 세상 모든 과학자에게 응원을!

서명은
KAIST에서 화학을 전공하여 이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모교인 KAIST 화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분자들을 서로 이어 고분자를 만들고 쓸모 있는 소재로 응용하고자 연구하고 있다.

약력

2002	KAIST 화학과 이학 학사
2008	KAIST 화학과 이학 박사
2008 – 2009	KAIST 박사후연구원
2009 – 2013	University of Minnesota 박사후연구원
2013 – 2020	KAIST 나노과학기술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2020 – 2023	KAIST 화학과 부교수
2023 – 현재	KAIST 화학과 정교수

내향적 성향이 살아남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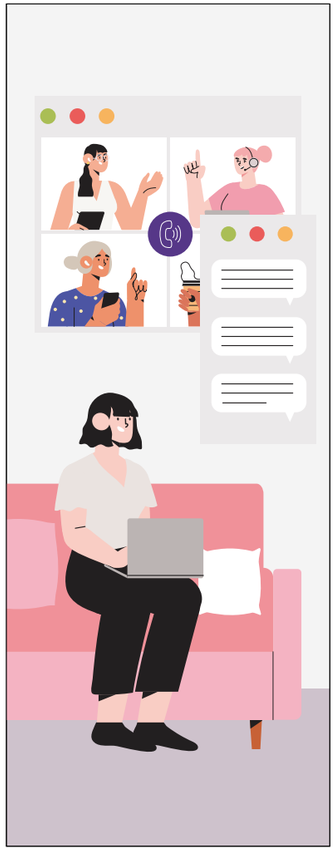
세상의 절반은 내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개인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활용하는 MBTI 지표를 보면, 통계적으로 내향형(I)이 외향형(E)보다 근소하게 더 많다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자신을 '외향적'이라고만 소개하거나 '내향적'이라고만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누구나 외향성과 내향성을 고루 가지고 있으며,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활발한 성격이면서도 어두운 일면이 있고, 누군가는 내향적인 성격이면서도 특정 부분에서는 누구보다 열정적이기도 하죠. 하지만 겉보기에 두 성격은 여러 측면에서 달리 보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며 에너지를 얻습니다. 주로 사색과 자기 성찰에서 에너지를 얻고, 사회적 상황에서는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하죠. 반면,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활력을 얻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조용한 환경에서 책을 읽거나 혼자 산책하는 것을 즐기고, 외향적인 사람은 모임과 외부 활동에서 더 활기차게 활동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소수의 깊이 있는 대화를 선호하며, 외향적인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편입니다. 간혹 내향적인 성격은 '소심하다'거나 남의 눈치를 보며 '위축되어 있다'는 오해를 받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내향적인 사람들은 소극적이고 능동적이지 않다는 편견에 시달리곤 합니다.

1 내향적인 사람의 강점 활용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특징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의 강점 중 하나는 차분함과 집중함입니다. 이들은 주어진 상황과 문제를 차분히 분석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긴 호흡을 요구하는 프로젝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내향적인 사람은 더 높은 수준의 자기 성찰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내향적인 사람은 대인 관계에서 세심함과 공감 능력이 뛰어나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는 특히 심리 상담, 연구, 창작 활동과 같은 분야에서 큰 강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향적인 심리 상담사는 내담자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세심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차분하고도 내밀한 성격은 타인의 마음에 잘 조율되는 법입니다.

또한, 이들은 집중력과 인내력이 뛰어나며, 복잡한 문제를 차분하게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신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정신건강의 영역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상황이 나에게 힘을 주는지에 대한 지식은 내향인의 삶에서 중요한 자산입니다. 주변 환경을 나에게 맞게 설정할 수 있다면, 자신의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향적인 이들에게는 특히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환경,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한 재충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루틴과 시간을 확보하여 일상 속에서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2

사회적 상황, 직장에서의 대처법

내향적인 사람이 사회적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소통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모임에 억지로 끼는 것보다는 부담되지 않는 소규모 모임에 참여하거나 본인과 친숙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모임이나 발표 전에는 충분한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발표나 대화의 속도를 잘 살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대화 중에 자신이 과하게 긴장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너무 빠르게 발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며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고, 자신의 페이스를 가다듬어 가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자신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평소에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조금씩 자신만의 느낌을 드러내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또, 신중하고 사려 깊은 자신의 장점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리듬을 가지고 찬찬히 문제를 살피며 해결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와 자기 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 있는 부분과 어려워하는 부분을 잘 구분하여 일처리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내향적이고 차분한 성격은 보고서 작성이나 분석 작업과 같이 혼자 집중할 수 있는 업무에서는 확실한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에게는 타인과의 관계 맺기가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직장에서 관계 맺기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급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취미를 매개로 한 사내 동아리나 결이 맞는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이 좋습니다. 대면이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온라인 메신저 등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관계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보통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대화는 부담스러워 피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일대일의 상황에서는 잘 들어주는 태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잘 맞는 관계의 형태와,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면

누구에게나 스트레스는 찾아옵니다.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일상 생활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휴식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일과와 충분한 수면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상의 작은 성취와 안정감을 통해서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적 통찰에 강점을 가진 내향적인 성향은 매일 일정 시간을 명상이나 독서에 할애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내향적인 사람이 에너지를 회복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 만족감과 집중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 상황을 해결할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4

자신의 성향과 삶을 받아들이기

주변 사람도,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성격에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격을 바꾸려는 노력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꾸준한 방향성을 갖고 노력을 하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의학적으로도 자기 수용과 긍정적인 자기 인식은 정신 건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의 마음과 좀 더 친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정과 생각을 주기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면 도움이 됩니다. 일기를 쓰거나, 일상의 기록을 비공개 블로그나, SNS에 남기는 방법으로 자기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내향적인 사람들은 비난을 받는 상황이 오면 자신에 대해 자책하며 늪에 빠져버리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난을 받을 때 그것이 나 자체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비난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난받은 내용을 다른 시각에서, 건설적인 피드백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도 도움이 될 겁니다. 너무 오래 비난의 늪에 빠져 있다고 느낀다면, 조용한 내 방이 아닌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외부 공간으로 자신을 데려다 놓는것도 효과적입니다. 내 마음이 비난을 쏟아냄을 느끼게 된다면, 주의 환기가 꼭 필요하다는 신호로 여기기 바랍니다.

'나는 내향적이야'라는 측면에 갇혀 있기보다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때 삶은 더 다채로워집니다. 내향적인 자신의 여러 측면에 대해 잘 알아차리고, 자신의 성향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약력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은 현재 강남푸른정신과를 운영 중이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인지행동치료, 불안장애치료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저서로는 '나를 살피는 기술', '어른의 태도' 등이 있으며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상담을 통해 환자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다.

아이스크림의 세계

인류는 어찌하여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게 되었을까? 만년설과 얽힌 이야기들이 그럴싸하다. 불타는 로마 시내를 보며 시를 읊었다는 희대의 폭군, 네로 황제가 만년설을 과일 등과 섞어 먹은 것이 아이스크림으로 발전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 다른 기원설도 만년설 없이는 이야기가 안 된다. 이탈리아 남단 시칠리아 섬의 팔레르모는 한때 아랍 세력의 통치를 받으며 세계 제2의 도시로 전성기를 누렸다. 이때 유입된 음료 샤르바트를 근처의 에트나 산 꼭대기의 만년설로 얼려 먹은 게 아이스크림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아랍인들이 시칠리아를 전진기지 삼아 인공 냉동기술을 발명했거나, 마르코 폴로 이전에 중국에서 기술을 들여왔다는 주장까지 있지만 근거는 없다.

아이스크림의 원리는 흡열 현상이다. 얼음에 소금을 뿌리면 녹는점이 낮아져 다른 식품을 얼릴 수 있게 된다. 과일즙이나 우유, 크림 등을 얼리는 한편 휘저어주면 공기가 섞이면서 아이스크림 특유의 질감을 띠게 된다. 인류는 흡열 현상을 활용해 17세기 후반부터 아이스크림의 원형인 셔벗(프랑스어로는 소르베)이나 그라니타를 만들어 먹었다. 그러다가 1870년대 독일의 엔지니어 카를 폰 린데가 개발한 냉동 기술로 얼음 저장의 부담을 덜어 대량 생산의 기틀을 다졌고, 1926년 냉동고의 출현으로 현대적인 생산 공정에 돌입했다.

이후 과일즙이나 술 등의 액체에 우유나 크림을 더해 부드러움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켜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아이스크림이 탄생하게 된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의하면 1668년 Iced Cream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다. 1672년 찰스 2세의 판결 문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1744년에 이르러 Iced Cream이 편의상 Ice Cream으로 정착했다. 유제품을 바탕으로 만드는 아이스크림은 계란 노른자의 첨가 여부에 따라 둘로 나뉜다. 먼저 우유와 크림, 설탕만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들면 필라델피아식이다. 1876년의 필라델피아 대박람회를 통해 미국 전역으로 퍼져 붙은 명칭이다. 18세기 말 초대 미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목요일 정찬에 종종 등장했다. 1974년부터 지금까지도 잘 팔리는 투게더가 필라델피아식이다. 한편 계란 노른자는 지방과 유화제 레시틴으로 유제품에 부드러움을 한 켜 더 덧대어준다. 덕분에 필라델피아 스타일에 비해 유지방 함량이 낮고 수분의 비율이 높더라도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고 프랑스식으로 분류한다. 우유, 크림 설탕을 끓이고 계란 노른자를 더해 익힌 크림 앙글레즈 또는 커스터드가 프랑스식 아이스크림의 바탕이다. 필라델피아식이든 프랑스식이든 잘 얼려야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이 된다. 바탕 혹은 베이스를 얼리는 한편 저어 공기를 불어넣는데, 이때 최대 1/5 정도는 얼지 않고 액체로 남아 있어야 아이스크림이 부드럽게 만들어진다. 공업적인 생산 환경에서는 급속 냉각을 통해 차가움과 부드러움을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잡아 만든다.

한편 베이스를 얼리며 불어넣는 공기의 비율도 부드러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공기를

많이 넣으면 아이스크림의 부피도 커지고 그 결과 더 부드러워진다. 이 비율이 부드러움의 척도인데, 오버런이라고 일컫고 백분율로 표기한다. 오버런이 100%라면 원액과 공기의 비율이 1:1이라는 의미다. 오버런과 아이스크림의 가치는 냉정히 따져보면 반비례 관계다. 수치가 높을수록 부드럽지만 그만큼 공기도 많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공기가 많은 아이스크림은 빨리 녹아 맛의 여운 또한 짧다. 따라서 다소 딱딱하더라도 오버런이 낮은 아이스크림이 더 돈 값을 한다. 소위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이 요즘도 공기를 덜 섞었다고 내세우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물론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오버런 수치를 높여 부드러움을 극대화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카벨에 의하면, 1934년 창업주인 톰 카벨이 구멍 난 타이어 때문에 주저앉은 트럭에 담겨 녹는 아이스크림을 판 것이 시초라고 한다. 일반 아이스크림(영하 15도)에 비해 훨씬 높은 판매 온도(영하 4~6도)가 유별난 부드러움의 비결이다. 조상 격인 빙과 그라니타의 고향이 시칠리아라서 그런지, 이탈리아가 유난히 아이스크림 강국이다. 그라니타는 빙수와 굉장히 흡사한데, 유지방을 더하지 않은 과일주스, 또는 와인(13도 전후)보다 낮은 도수의 술로 만든다. 얼리면서 30분마다 한 번씩 포크로 잘게 부숴 주거나 아예 꽁꽁 얼린 뒤 갈아서 특유의 입자감을 낸다.

이탈리아에서는 버터를 많이 넣은 빵 브리오슈와 함께 아침상에도 오를 정도다. 이탈리아식 아이스크림인 젤라토는 명칭 자체가 '얼렸다'는 뜻이다. 유지방의 비율이 낮아 이를 상쇄하기 위한 설탕의 비율이 높다 보니 결과적으로 밀도가 높은, 쫀쫀한 아이스크림이다. 계란 노른자를 넣지 않아야만 진짜 젤라토라는 주장도 있다. 완전히 얼려 만드는 젤라토와 조금 다른, 세미프레도라는 빙과류도 따로 있다. '반만 얼렸다'는 뜻으로 베이스를 휘젓지 않고 틀에 담아 얼린 뒤 썰어 먹는다. 프랑스에서는 크림 앙글레즈를 얼린 아이스크림을 글라세, 유지방을 더하지 않은 과일즙 등을 얼린 빙과를 소르베라 일컫는다. 높은 잔에 담은 과일 칵테일과 아이스크림, 일본식 모형 우산으로 한때 카페 인기 메뉴였던 파르페는 사실 저어 공기를 불어넣지 않고 얼려 단단한 아이스크림을 의미한다. 인도를 비롯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등의 남아시아에서는 연유로 만든 쿨피를 먹는다. 틀에 넣어 굳히므로 'OO바' 류의 '하드'와 비슷하다. 아랍의 디저트 팔루데도 그라니타처럼 아이스크림의 조상격이다.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가는 당면에 설탕과 장미수의 시럽을 섞어 얼려 만든다.

어떤 아이스크림이든 상온에 두어 온도를 좀 올려준 뒤 먹는 게 좋다. 혀가 마비되지 않아 본래의 맛을 잘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 수분이 녹으면서 액체 상태로 변해 훨씬 더 부드러워진다. 한편 먹고 남은 아이스크림은 냄새가 배지 않도록 붐비지 않는 냉동실에 두는 게 좋고, 먹은 부위에 랩을 밀착시키면 말라 질감이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다.

약력

이용재 음식 평론가 겸 번역가. 한양대학교와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교에서 건축 및 건축학 석사 학위를 받고, 애틀랜타의 건축 회사 tbs 디자인에서 일했다.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했다. 저자로서 '맛있는 소설', '오늘 브로콜리 싱싱한가요?', '한식의 품격', '외식의 품격', '냉면의 품격', '미식대담', '조리 도구의 세계', '식탁에서 듣는 음악'을 썼다. 옮긴 책으로는 '실버 스푼', '뉴욕의 맛 모모푸쿠', '인생의 맛 모모푸쿠', '철학이 있는 식탁', '식탁의 기쁨', '모든 것을 먹어본 남자' 등이 있다.

이용재의 미식 에세이

PGA TOUR & LPGA GOLFWEAR

"우승을 부르는 골프웨어, 브랜드 통산 32번째 트로피"

PGA TOUR & LPGA 골프웨어 후원, 배소현 생애 첫 우승

– 배소현 선수 생애 첫 우승 거머쥐어.. PGA TOUR & LPGA 골프웨어 후원선수 통산 32번째 달성

– 배소현 우승 기념으로 특별 할인 프로모션 진행.. 여름 신상품 구매 시 30% 할인 혜택 제공

– PGA TOUR & LPGA 골프웨어, "최상의 기량 펼칠 수 있도록 최고의 골프웨어 꾸준히 선보일 것"

국내 대표 패션기업 한세엠케이(각자대표 김지원, 임동환)의 'PGA TOUR & LPGA 골프웨어'가 후원하는 배소현 선수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뒀다.

배소현 선수는 지난 26일 경기 여주시 페럼클럽에서 열린 2024 KLPGA 투어 'E1 채리티 오픈'에서 최종 합계 9언더파 207 타를 기록, 정규투어 154번째 출전 대회에서 첫 우승의 감격을 누리게 됐다. 배 선수는 PGA TOUR & LPGA 골프웨어와 계약 후 4년 연속 1부 투어 시드를 유지하며 꾸준히 활약 중이다. 이로써 PGA TOUR & LPGA 골프웨어가 후원하는 선수들의 총 우승 횟수가 32회에 달하는 기록을 달성, '우승을 부르는 골프웨어'로서 위상을 갖추게 됐다. 우수한 기능성을 강조한 골프웨어와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빛나는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PGA TOUR & LPGA 골프웨어는 배소현 선수의 우승을 기념해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는 6월 2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여름 신상품 구매 시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한세엠케이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지닌 PGA TOUR와 LPGA의 아시아 유일한 공식 인증 파트너로 독점 라이센스 계약 체결을 통해 PGA TOUR & LPGA 골프웨어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 골퍼 1위에 이름을 올린 고진영 등 각 투어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후원하며, 필드 위에서 최적의 컨디션을 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골프여제' 고진영 선수는 역대 최장기간인 163주간 여자 골프 세계랭킹 1위에 달성하며 신기록을 세웠다. 2018 LPGA투어 'ISPS 한다 호주 여자오픈'에서 투어 역사상 67년만에 데뷔전 우승 기록을 세운 것을 시작으로 LPGA 골프웨어 후원 이후 15승을 이뤘다. 한국 여자 골프 레전드 반열에 오른 장하나 선수는 2018 LPGA 골프웨어와 계약 이후 '한국투자증권 챔피언십' 우승을 시작으로 7승을 거머쥐며 KLPGA 역대 누적 상금 1위 기록, 통산 상금 50억원을 최초로 돌파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루키 시즌 3승을 거두며 KLPGA 최고의 스타로 떠오른 임희정 선수, 2023 PGA투어 '소니 오픈'에서 우승한 김시우 선수 또한 후원 당시 뛰어난 활약을 펼친 바 있다. 이승연, 배용준, 김민규 등의 선수들도 PGA TOUR & LPGA 골프웨어와 계약 후 생애 첫 우승을 달성하며 브랜드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PGA TOUR & LPGA 골프웨어 관계자는 "배소현 선수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의 경기에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며, "후원 선수들의 성과를 통해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필드 위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고기능성 골프웨어 개발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PGA TOUR & LPGA GOLFWEAR

PGA TOUR & LPGA 골프웨어

김민선7 선수 준우승 기념 이벤트

브랜드 통합 32승 달성, '승리를 부르는 골프웨어' 입지 확고

– 김민선7 선수, 탁월한 경기력으로 KLPGA 투어 준우승 기록.. 데뷔 첫 홀인원 성공

– PGA TOUR & LPGA 골프웨어, 후원선수 선전 기념으로 최대 20% 특별 할인 프로모션 진행

PGA TOUR & LPGA 골프웨어 선수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대표 패션기업 한세엠케이(각자대표 김지원, 임동환)의 'PGA TOUR & LPGA 골프웨어'가 후원하는 김민선7 선수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준우승을 기록하며, 이번 시즌 두 번째 TOP10에 이름을 올렸다. 김민선7은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양평 더스타휴 골프&리조트에서 열린 'Sh수협은행·MBN 여자오픈'에서 탁월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공동 2위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대회 2라운드에서는 KLPGA투어 데뷔 첫 홀인원을 성공시키며 기쁨을 만끽했다. 최근 배소현이 154번째 정규투어에서 감격적인 생애 첫 우승을 기록한데 이어 김민선7이 준우승을 차지하며, PGA TOUR & LPGA 골프웨어는 명실상부한 '승리를 부르는 골프웨어'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김민선7 은 "이번 준우승과 홀인원의 기운을 이어 올해 LPGA 골프웨어를 입고 꼭 생애 첫 우승을 거두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장 177cm의 우월한 피지컬을 자랑하는 김민선7 선수는 2021년 골프 국가대표 출신으로, LPGA 골프웨어와 함께 프로로서의 시작을 알렸다. 프로 전향 후 첫 대회였던 '2022 백제CC·XGOLF 점프투어 1차전'에서 우승의 영광을 안았고, 잇따른 대회에서도 모두 TOP10을 기록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4개 대회만으로 드림투어까지 초고속 직행, 드림투어 왕중왕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2023년 정규투어 풀시드를 획득했다.

한편, 같은 날 진행된 KPGA 데상트코리아 매치플레이에서 우승한 김민규 또한 2023년까지 PGA TOUR 골프웨어를 입고 활약했던 선수이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골퍼 1위 고진영을 필두로, 김시우, 장하나, 임희정, 배용준 등 PGA TOUR & LPGA 골프웨어의 전·현직 선수들의 뛰어난 활약으로 브랜드 통합 32승이라는 위업을 달성하게 됐다. PGA TOUR & LPGA 골프웨어는 배소현과 김민선7의 연이은 활약을 기념해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2024년 여름 신상품을 2개 구매 시 10%, 4개 구매할 경우 20% 즉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PGA TOUR & LPGA 골프웨어 관계자는 "김민선7 선수와 배소현 선수의 활약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앞으로도 선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며, "우수한 퀄리티와 트렌디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후원 선수와 고객 모두에게 어울리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PGA TOUR & LPGA GOLFWEAR

GOLFWEAR
THAT BRINGS VICTORY

#협회공식인증골프웨어 #PGATOUR골프웨어 #LPGA골프웨어 #골프웨어
#골프웨어추천 #골프 #GOLF #OOTD #라운드룩 #필드룩 #여름골프

LPGA GOLFWEAR

시어써커 티셔츠

실버링 토트백 & 시어써커 버킷햇

플리츠형 하프팬츠

- 시어써커 티셔츠: 시어써커 원단과 화이트 컬러 패턴 디자인으로 화사하고 시원한 착용감의 루즈핏 티셔츠
- 플리츠형 하프팬츠: 시원하고 가벼운 씨어서커 스커트형 하프팬츠
- 실버링 토트백: 가볍고 독특한 원형 디자인의 토트백
- 시어써커 버킷햇: 시원한 소재와 컬러감이 돋보이는 여름 버킷햇

PGA TOUR

#협회공식인증골프웨어 #PGATOUR골프웨어 #LPGA골프웨어 #골프웨어
#골프웨어추천 #골프 #GOLF #OOTD #라운드룩 #필드룩 #여름골프

- 패턴 메쉬 티셔츠: 은은한 광택감의 카무 패턴과 변형된 어깨라인이 멋스러운 메쉬 티셔츠
- 퍼포먼스 펀칭 팬츠: 뒷판 종아리 부분에 레이저 타공을 적용하여 통기성이 뛰어나며 냉감소재로 시원한 팬츠
- 카무 패턴 바이저: 통기성이 우수한 경량 스트레치 소재의 선바이저

PGA TOUR & LPGA GOLFWEAR

#협회공식인증골프웨어 #PGATOUR골프웨어 #LPGA골프웨어
#골프웨어 #골프 #GOLF #OOTD #여름 #라운드룩 #골프웨어추천 #패션

LPGA GOLFWEAR

- 스윙레이디 슬리브리스: 전면 사선 스트라이프 디자인과 가슴에 빅 스윙레이디 로고가 포인트인 민소매 골프 티셔츠
- 허리 밴딩 큐롯: 허리에 넓은 밴드를 사용하여 착용 시 스포티한 무드와 편안하고 활동성이 좋은 큐롯

PGA TOUR & LPGA GOLFWEAR

GOLFWEAR THAT BRINGS VICTORY

PGA TOUR & LPGA GOLFWEAR PGA TOUR & LPGA GOLFWEAR

LPGA GOLFWEAR

#협회공식인증골프웨어 #PGATOUR골프웨어 #LPGA골프웨어
#골프웨어 #골프 #GOLF #OOTD #여름 #라운드룩 #골프웨어추천 #패션

- 그라데이션 캡소매 티셔츠: 시원한 소재에 그라데이션 프린트가 포인트이며 자외선 차단으로 여름에 특화된 골프 티셔츠
- 더블 플리츠 스커트: 가볍고 하늘거리는 이중 주름 플리츠 스커트로 스윙의 방향에 따라 움직여 활동성이 돋보이는 스커트

- 그라데이션 반팔 티셔츠: 컬러 그라데이션이 포인트이며, 메쉬 소재로 시원함을 제공하는 골프티셔츠
- 밴딩 릴랙스 팬츠: 허리 밴딩사양으로 일상과 라운딩 어디에서나 편안하게 착용하기 좋은 골프팬츠
- 스파이크리스 골프화: 내구성이 좋은 아웃솔과 바디로 편안하고 착화감이 우수하며 티꽃이가 포인트로 실용성이 좋은 골프화

PGA TOUR

#협회공식인증골프웨어 #PGATOUR골프웨어 #LPGA골프웨어 #골프웨어
#골프웨어추천 #골프 #GOLF #OOTD #여름 #라운드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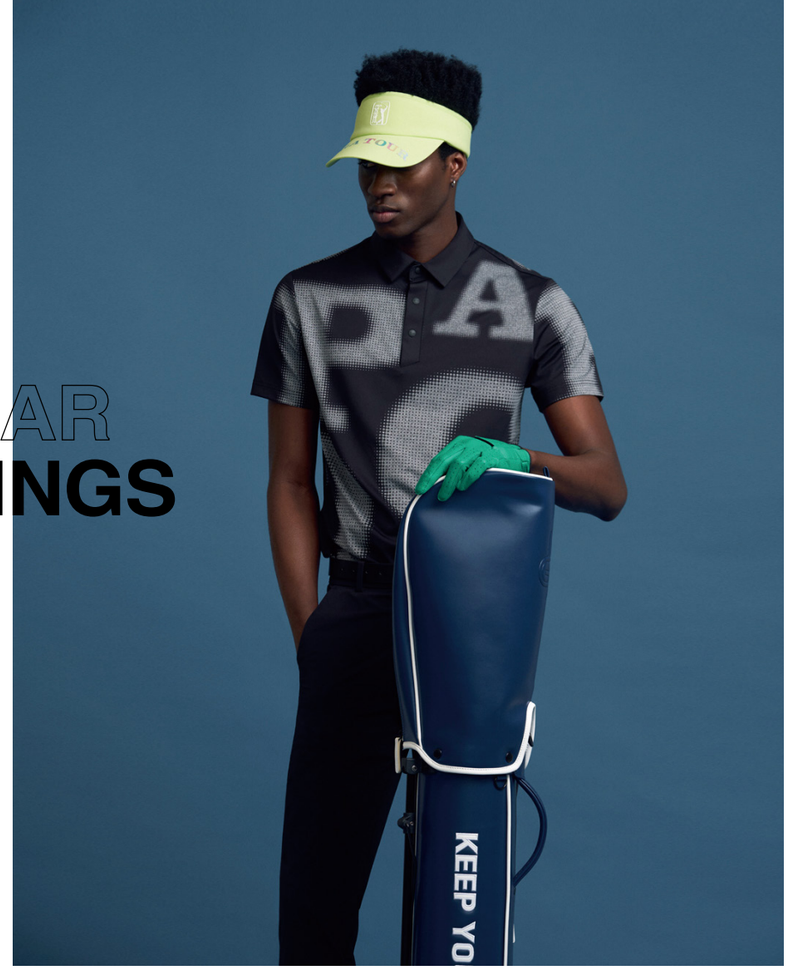
LPGA GOLFWEAR

#협회공식인증골프웨어 #PGATOUR골프웨어 #LPGA골프웨어
#골프웨어 #골프 #GOLF #OOTD #여름 #라운드룩 #골프웨어추천 #패션

- 메쉬 조직 니트 베스트: 시원하고 청량한 여름 메쉬 베스트.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베스트
- 더블 플리츠 큐롯: 가볍고 하늘거리는 이중 주름 플리츠 스커트. 스윙의 방향에 따라 움직여 활동성이 더욱 돋보이는 스커트
- 펀칭 밴드 볼캡: 가볍고 뒷부분 펀칭 디자인으로 통기성이 뛰어난 골프 볼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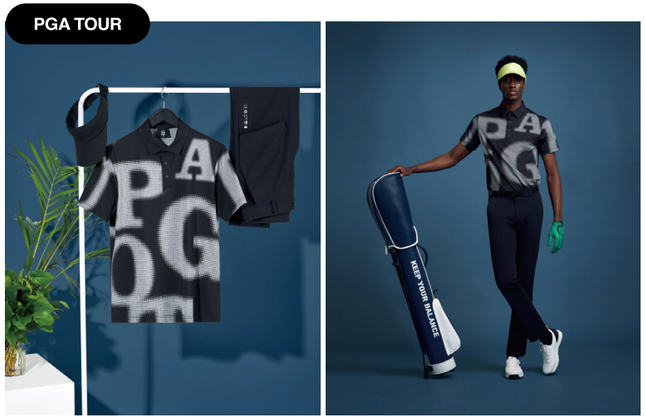
PGA TOUR & LPGA GOLFWEAR

GOLFWEAR THAT BRINGS VICTORY



PGA TOUR & LPGA GOLFWEAR PGA TOUR & LPGA GOLFWEAR

PGA TOUR



- 로고 냉감 티셔츠: 흡건속성, 냉감 효과와 탄성이 좋아 복원력도 뛰어나며, 은은한 광택감과 로고디자인이 세련된 냉감티셔츠
- 냉감 펀칭 팬츠: 흡한속건, 냉감, 자외선 차단 기능뿐만 아니라 종아리 부분에 레이저 타공을 적용하여 통기성을 극대화한 골프팬츠

#협회공식인증골프웨어 #PGATOUR골프웨어 #LPGA골프웨어
#골프웨어 #골프웨어추천 #골프 #GOLF #OOTD #여름 #라운드룩

PGA TOUR

- 코튼 라운드 티셔츠: 내추럴한 오버핏 스타일 라운드 티셔츠로 편안하게 캐주얼한 감성으로 착용 가능한 라운드 티셔츠
- 벨티드 조거팬츠: 볼 포켓 디테일로 유니크한 디자인이 포인트이며 통기성이 뛰어난 매직홀 소재로 시원함을 제공하는 조거팬츠

#협회공식인증골프웨어 #PGATOUR골프웨어 #LPGA골프웨어
#골프웨어 #골프웨어추천 #골프 #GOLF #OOTD #여름 #라운드룩

PGA TOUR & LPGA GOLFWEAR

GOLFWEAR THAT BRINGS VICTORY

PGA TOUR & LPGA GOLFWEAR PGA TOUR & LPGA GOLFWEAR

LPGA GOLFWEAR

- 롱기장 레인코트: 소매 탈부착이 가능하며 허리 셔링 디테일로 여성스러운 디자인과 신축성과 방수와 발수력을 극대화한 롱기장 레인코트

#LPGA골프웨어 #PGATOUR골프웨어 #협회공식인증골프웨어 #골프웨어 #골프 #GOLF #여름 #라운드룩 #레인자켓 #레인코트 #우비 #골프웨어추천 #장마 #패션

- 퍼포먼스 레인자켓: 소매 탈부착, 내장 후드와 밑단 스트링의 기능성이 탑재되었으며, 방수와 발수력을 극대화시킨 퍼포먼스 레인자켓

PGA TOUR

#PGATOUR골프웨어 #LPGA골프웨어 #협회공식인증골프웨어 #골프웨어
#골프웨어추천 #골프 #GOLF #여름#라운드룩 #레인자켓#레인코트 #우비#장마

BUCKAROO

버커루,
배우 이동휘와 함께한
24 여름 화보 공개

- 버커루, 배우 이동휘와 함께한 24 여름 화보 공개
- 배우 이동휘만의 패션 감각으로 완성한 웨스턴 무드 눈길.. 브랜드 헤리티지 완벽 소화

배우 이동휘
그의 매력을 담아낸 BUCKAROO 여름 화보

국내 대표 패션기업 한세엠케이(각자대표 김동녕, 김지원, 임동환)의 프리미엄 빈티지 브랜드 버커루(BUCKAROO)가 배우 이동휘와 함께한 24 여름 화보를 공개했다.패션&컬처 데일리 디지털 매거진 패스트페이퍼(fastpaper)와 도쿄에서 촬영된 이번 화보는 버커루의 24 S/S 컬렉션과 함께 배우 이동휘의 모습을 집중 조명했다.

공개된 화보 속 이동휘는 낮부터 밤까지의 도쿄 도심 특유의 분위기에 다채로운 표정과 포즈를 더해 시크한 면모를 한껏 발산했으며, 버커루의 24 S/S 컬렉션을 활용한 감각적인 스타일링을 통해 패셔니스타다운 패션을 선보였다. 빈티지 그래픽이 어우러진 바이크 무드의 반팔 티셔츠와 체크 패턴의 긱시크 셔츠를 비롯해, 그가 평소 애용하는 락시크 무드의 블랙 라이더 자켓까지 데일리 스타일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제안한다.

특히 이동휘는 화이트 컬러의 스탠다드 반팔 셔츠와 와이드핏 데님 팬츠를 함께 매치하여 깔끔한 남친룩을 선보이는가 하면, 버커루의 아이덴티티가 돋보이는 웨스턴 무드의 데님 셔츠와 팬츠를 활용한 청청패션 또한 완벽히 소화하며 특유의 빈티지 분위기를 완성했다. 이 밖에도 이번 화보를 통해 버커루의 카라 포켓 반팔 니트, 스트레이트 핏의 카고 팬츠 등으로 실용적인 데일리 룩을 공개했다. 이동휘는 최근 공항패션을 통해 선보인 체크 셔츠 패션으로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가 되며 품절 사태를 일으킨 바 있다.

버커루 관계자는 "연예계 대표 패피 이동휘의 다양한 매력을 담아낸 여름 화보를 공개하게 됐다"며 "배우 이동휘가 보여준 버커루만의 빈티지하면서도 트렌디한 브랜드 헤리티지를 많은 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평소 독보적인 스타일과 패셔너블한 이미지로 '이동휘 패션'을 구축해 온 연예계 대표 패셔니스타인 만큼, 이번 화보 속에서도 버커루의 헤리티지를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무드로 표현해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천만 관객을 사로잡은 영화 '범죄도시4'와 최근 개봉한 영화 '설계자'에서 다양한 매력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배우 이동휘와 함께한 버커루의 2024 여름 화보는 패션&컬처 데일리 디지털 매거진 패스트페이퍼(fastpaper)의 공식 SNS 채널과 버커루 공식 SNS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이동휘가 착용한 버커루의 24 S/S 컬렉션은 공식 온라인몰 스타일24와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서 특별 프로모션으로 만나볼 수 있다.

2024 SUMMER PICTORIAL

버커루만의 빈티지하면서도 트렌디한
브랜드 헤리티지

웨스턴 무드의 셔츠와 버커루 특유의 빈티지함이 돋보이는
일자 스트레이트 핏의 아이보리 데님 팬츠

화이트 컬러의 스탠다드 반팔 셔츠와 와이드핏
데님 팬츠를 함께 매치하여 깔끔한 남친룩

이동휘 배우가 평소 애용하는 락시크 무드의
블랙 라이더 자켓을 활용한 데일리 룩

BUCKAROO

일상복이 된 스포츠 유니폼.. 올여름 블록코어의 바람이 분다

– 파리올림픽 앞두고 블록코어 패션 트렌드 주목.. 일상 속 스포츠 유니폼 찾는 고객 늘어
– NBA, 노스페이스, 챔피온 등 블록코어 패션 아이템 전개
– 쾌활한 스포티 무드로 여름 시즌 시원한 스트릿 패션으로 연출 가능

각종 스포츠 리그 시즌에 이어 이달 개막하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블록코어'가 여름 패션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블록코어(Blokecore)'는 스포츠 유니폼 스타일을 일상복과 매치한 패션으로, 영국 길거리에서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축구 팬의 모습을 재해석해 등장한 이후 급속도로 인기를 끌었다. 해외 인플루언서 및 K팝 스타들이 즐겨 입으며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특히 자신만의 개성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 올해도 블록코어는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무신사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유니폼 카테고리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5.4배 증가했다. 올 초(1월 15일~2월 13일)에도 직전 기간(2023년 12월 16일~2024년 1월 14일) 대비 16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국내 패션 브랜드들도 관련 제품들을 발빠르게 선보이며 올여름 블록코어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Sporty Mood

NBA, 레트로 블록코어 스타일 '유나이티드 컬렉션' 인기... 메쉬 소재로 한여름 시원하게 활용

한세엠케이의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NBA는 '유나이티드 컬렉션'을 통해 농구 유니폼을 활용한 레트로 블록코어 스타일을 제안했다. 스포티한 무드의 컬러 배색과 기능성을 강조한 디자인이 특징이며, 유니폼과 일상복의 경계를 허물고 편안하면서 힙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제품이다. 뉴욕 닉스, 시카고 불스 등 NBA 인기 구단 빅로고가 포인트인 'SAS 유나이티드 메쉬 슬리브리스'는 통풍성이 우수한 메쉬 소재를 사용해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함을 유지하며 스타일리쉬하게 착용할 수 있다. 반바지와 함께 셋업으로 착용하면 트렌디한 스트리트 패션 연출이 가능하다. 넉넉하고 긴 기장의 원피스 스타일로도 선보여 다양하게 레이어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레트로 감성의 'NYK 유나이티드 팀 유니폼 메쉬 반팔 티셔츠'는 전면부 레터링 그래픽과 컬러배색 디테일이 Y2K 분위기를 자아내며 SNS 패션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오버핏 사이즈로 제작돼 남녀 모두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다.

노스페이스, 팀코리아 레플리카 컬렉션으로 패셔너블한 블록코어룩 표현

노스페이스는 '팀코리아 레플리카 컬렉션'을 한정 출시했다. 젊은 세대를 겨냥한 아이템들로 구성해 레플리카룩이나 블록코어룩으로 활용하기 좋다. 노스페이스는 2014인천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팀코리아 공식 단복'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파리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팀코리아의 선전을 기원해 재킷, 반팔티, 백팩, 모자 등 총 20개 품목으로 구성했다. 미니미 디자인의 키즈 제품도 함께 선보여 특별한 패밀리룩 연출 또한 가능하다. 팀코리아 시상용 단복'을 모티브로 한 '팀코리아 레스턴 재킷'은 하얀색 바탕에 동해 바다의 쪽색을 수묵화 느낌으로 표현한 디자인이 눈에 띄는 초경량 바람막이 재킷이다. 냉감 소재를 적용한 와이드한 핏의 검정색 카고 팬츠,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준 벨트를 함께 코디하면 일상 속에서 태극기 패션을 연출할 수 있다.

LF 챔피온 헤리티지 아이템 '나일론 메쉬' 인기.. 레이어링 연출 통해 블록코어 스타일링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챔피온은 대표 헤리티지인 '나일론 메쉬' 아이템을 선보였다. 골프 글러브에 사용되는 직물에서 영감을 받아 챔피온만의 기술로 제작, 1967년 미식 축구 유니폼으로 처음 선보인 소재다. 그 후 여름 시즌마다 주력으로 출시하며 패션 애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2024년 봄여름 시즌 신제품으로 공개한 '나일론 메쉬 셋업'은 민소매와 반바지로 구성됐으며 레드, 블루, 블랙 3종 컬러로 출시됐다. 싱글 메쉬 원단의 민소매는 긴팔, 반팔 티셔츠와 함께 레이어링해 블록코어 패션을 연출할 수 있다. 통기성이 좋은 재질로 운동복, 바캉스룩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다.

한세엠케이 NBA, 24 FW '플레이 라인' 출시

– NBA, FW시즌을 여는 스포티한 무드의 '플레이 라인' 선공개.. 출시기념 '드림팀' 응원 이벤트
– 컬렉션 명 & 드림팀 응원 댓글 남기는 이벤트 실시.. 공식 SNS 게시글 통해 참여 가능
– 내달 11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플레이 라인 제품 2개 이상 구매 시 10% 할인 프로모션 진행

Play line

한세엠케이(각자대표 김지원, 임동환)가 전개하는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NBA가 FW시즌 '플레이 라인' 출시 기념으로 NBA 스타들이 뭉친 드림팀(미국 농구 대표팀) 응원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NBA의 '플레이 라인' 은 스포티한 무드를 베이스로 한 캐주얼 룩을 강조하는 컬렉션으로, 부드러운 착용감과 여유로운 루즈핏이 특징이다. '플레이 게임(PLAY GAME)' 텍스트를 활용한 심플한 아트웍으로 스타일리시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에어로웜, 트리코트 본딩 등 플레이 라인만의 차별화된 보온성 기능을 갖춘만큼 다가오는 FW 시즌 데일리룩으로 연출하기 좋다. NBA는 플레이 라인과 함께 역대급 라인업으로 구성된 드림팀 경기를 팬들과 즐기고자 특별 프로모션을 기획했다.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는 미국 농구 대표팀은 르브론 제임스, 스테판 커리, 제이슨 테이텀 등 현역 최고의 선수들이 포함돼 화제다. 화려한 성적과 뛰어난 실력으로 NBA를 대표하는 인기 스타들이 한 팀으로 뭉친 만큼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NBA 팬들과 함께하는 드림팀 응원 이벤트는 브랜드 공식 SNS을 통해 진행된다. 7월 29일까지 이벤트 게시글에 신규 컬렉션 이름과 응원 댓글을 남기면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당첨된 총 10명에게 '플레이 게임 후드 집업'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NBA 플레이 라인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만나볼 수 있는 할인 이벤트도 열린다.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4 시즌에 출시된 플레이 라인 제품에 한해 2개 이상 구매 시 추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세엠케이 관계자는 "NBA 스타 플레이어들이 한자리에 모인 드림팀을 응원하며 플레이 라인 신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참여형 이벤트 등을 통해 브랜드 헤리티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세엠케이는 지난 2011년 미국 프로농구협회와 국내 라이선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NBA 팀 로고와 캐릭터, 이미지 등을 모티브로 한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NBA'와 'NBA키즈'를 전개 중이다. NBA는 특유의 스포티즘 감성과 트렌디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의류, 액세서리 등을 다채롭게 선보이며 MZ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다.

F/W season

Daily look

NBA키즈, 슈즈 컬렉션 판매 호조.. 전년 대비 117% 증가

스타일&편안함을 모두 잡은 '느바키즈' 슈즈, 장마·바캉스 필수템으로 인기

- NBA키즈, 슈즈 컬렉션 순항.. 23년 대비 판매수량 117% 증가
- 리플렉션 러닝 스니커즈 및 썸머 샌들 3종 신제품 출시.. 다양한 스타일로 구성, 선택의 폭 넓혀
- 오는 30일까지 스타일24에서 포인트 2배 적립, 신상 티셔츠 증정 등 풍성한 프로모션 진행

국내 대표 패션기업 한세엠케이(각자대표 김지원, 임동환)가 전개하는 NBA키즈의 슈즈 컬렉션이 판매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여름 시즌 신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NBA키즈의 슈즈 컬렉션은 스포티즘 감성을 반영한 트렌디한 디자인 및 편안한 착화감으로 아이들과 부모 세대 사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올봄 신학기를 겨냥해 선보인 '코트스타 스니커즈'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슈즈 판매 수량이 전년 대비 117% 신장했으며, 판매금액 또한 6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24 S/S 시즌 신상품으로 공개한 '리플렉션 러닝 스니커즈'는 기능성 메쉬 소재를 사용하여 가벼운 무게와 통풍성을 갖췄다. 측면 팀 로고 패치와 메탈릭한 실버 색상을 적용해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좋다. 이외에도 빛 반사 효과가 있는 3M 원사를 활용해 어두운 곳에서도 아이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NBA키즈의 샌들 라인업 3종 역시 여름 폭염과 장마철 호우를 앞두고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 물에 젖지 않는 파일론 소재의 미드솔을 사용해 물놀이에도 신을 수 있으며 쿠션감 또한 우수하다.

Kids shoes

탈착용이 편안한 벨크로 타입으로 안정감도 높였다. 일상 데일리룩은 물론 여름휴가 시 래시가드 등과 함께 바캉스 패션에도 스타일리시하게 매치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보니 샌들'은 베이직한 컬러를 활용한 피셔맨 샌들 디자인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휴양지 리조트룩에도 스타일링할 수 있다. 신축성 있는 네오프렌 원단으로 발의 피로감을 줄여 편안하게 신을 수 있다. 빅 사이즈 로고와 솔리드 컬러가 돋보이는 '볼리드 샌들'은 길이 조절이 가능한 스트랩을 적용했다. 발등과 발목을 각각 조정할 수 있어 다양한 발 형태에 맞게 착용할 수 있다. '에어 샌들'은 발등 전체를 덮는 메쉬 소재 원단으로 통기성을 강화해 발의 열기와 땀을 빠르게 배출해 준다. 엘라스틱 밴드를 사용해 신고 벗기 용이하며, 발 전체를 감싸주는 벨크로 및 미끄럼 방지 패턴이 들어간 인솔을 적용하여 레저 활동에도 제격이다. 한편, NBA키즈는 고객들의 성원과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6월 한 달 동안 공식 온라인몰 스타일24에서 신상 샌들을 구매한 고객 모두에게 포인트 2배 적립 및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리뷰를 남긴 고객 중 추첨을 통해 24 S/S 신상 티셔츠를 선물한다. NBA키즈 관계자는 "편안함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NBA키즈의 슈즈 컬렉션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F/W 시즌을 위한 스니커즈, 방한화 등 앞으로도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신제품을 꾸준히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NBA KIDS RASH GUARD

NBA키즈래시가드와 여름 June비!

01

02

골라입는 재미! 캐리어 한가득
NBA키즈래시가드 챙겨 시원한 바다로
함께 떠날 준비 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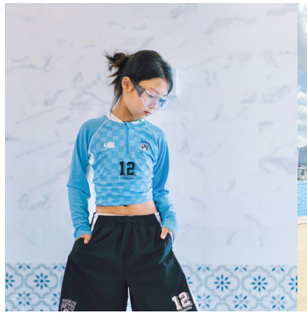
01 안쪽 밴딩 탑에 패드를 내장하고 밴드 디테일을 넣어 착용 시 올라가는 것을 최소화한 크롭 기장감의 여아전용 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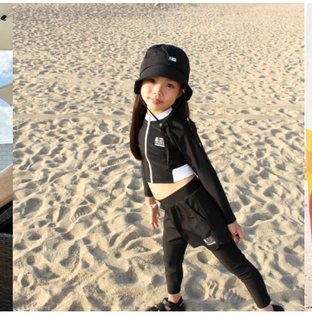
02 청량미가 가득한 스카이블루 컬러와 로고 패턴이 은은하게 들어간 스포츠 유니폼 느낌의 반집업 래시가드

SUMMER

NBA ROOKIE

NBA키즈와 함께 시원한 물속으로 풍덩~
시원함에 시원함을 더하다!





BLOKECORE LOOK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 자유롭게!

NBA 폴리 메쉬 민소매 티셔츠

블록코어룩에 어울리는 시원한 터치감에 비비드한 컬러감까지 더해진 유니폼 스타일의 져지입니다.
슬리브리스 단독 코디는 물론 반소매 티셔츠와 함께 스타일링해도 힙점만점! 어떤 하의와 코디해도 찰떡궁합!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 스트릿 화보로 만들어 버리는 느바루키의 센스만점 스타일링! 함께 보실까요?

스트릿룩에 힙의 마침표를 찍어주는 NBA키즈스냅백! 앞으로 써도, 뒤로 써도 완벽한 핏의 NBA키즈모자는 더욱 다양한 스타일과 함께 지금 바로 스타일24에서 만나보세요~

moimoln

모이몰른, 론칭 10주년 맞이 브랜드 캠페인

한세엠케이가 전개하는 글로벌 유아동 패션 브랜드 모이몰른은 론칭 10주년을 맞아 대규모 브랜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2014년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론칭한 모이몰른은 자연친화적인 북유럽 스타일의 디자인과 소재, 유니크한 그래픽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유아동복 브랜드다. 론칭 당시 아동복 시장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독특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론칭 1년만에 매장 100곳을 구축하는 등 빠르게 국내 대표 유아동복 브랜드로 안착했다. 이러한 성장세에 탄력을 받은 모이몰른은 한국과 중국, 일본, 미국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며 국내 유일의 글로벌 유아동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다. 현재 국내 159개의 매장을 비롯해 중국 100개점, 일본 20개점의 오프라인 매장과 미국 아마존 닷컴 내 공식 브랜드관을 운영 중이다. 특히 2020년 진출한 일본 시장에서는 우수한 퀄리티와 합리적인 가격대, 유니크한 디자인 등 차별화된 강점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모이몰른은 론칭 1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브랜드 활동을 전개한다. 우선 10주년 브랜드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글로벌 유아동복 브랜드로서의 방향성을 대중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이번 캠페인은 모이몰른의 의류를 착용한 아이들이 모이몰른 구름을 타고 미국, 일본, 중국을 여행하며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컨셉으로, 도쿄, 뉴욕, 베이징을 시각화한 페이퍼 아트 배경 및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을 모델로 섭외해 '글로벌 베이비 웨어' 슬로건을 강조했다. 또한 고객과의 소통 및 모이몰른 10주년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실시한다. 10주년을 기념해 역대 최대 규모로 마련된 '모이몰른 고객 누구나 100돈 골드바의 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국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몰 '스타일24'에서 10만원 이상 구매 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중복 참여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SNS에 지난 10년 동안 모이몰른과 함께했던 추억 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는 '나의 모이 이야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당첨 시 국민관광상품권 30만원(1명) 및 쑥쑥 멤버십 포인트 10만원(1명), 5만원(3명), 1만원(20명)을 증정하며 당첨자에게는 추후 진행될 모이몰른 홈커밍 파티 초대권도 받아볼 수 있다. 모이몰른은 향후 글로벌 진출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전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최고의 유아동 브랜드로 자리잡기 위해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성장 로드맵을 본격화하고, 다양한 마케팅 및 상품 전략을 통해 모이몰른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알릴 예정이다. 또한 기존 전개 중인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면서 새로운 국가로의 진출도 고려 중이다.

김지원 한세엠케이 대표는 "국내 대표 유아동복 브랜드 모이몰른이 지난 10년 동안 걸어온 발자취와 성과를 대중들에게 보여드리고자 론칭 후 최초로 대규모 캠페인을 선보이며 풍성한 혜택을 담은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이몰른이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글로벌 유아동 패션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 아이 첫 옷, 내 손으로'

모이몰른, 배냇저고리 만들기 클래스 열어

베이비웨어 브랜드 모이몰른은 커스텀 배냇저고리 만들기 클래스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16일 모이몰른을 전개하는 한세엠케이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베이비웨어로서의 브랜드 입지를 다지고 고객과의 접점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첫 클래스는 '아이가 처음 만나는 옷, 내 손으로'라는 타이틀로 진행됐다. 우리 아이의 첫 번째 옷을 제작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클래스는 지난 13일 청담 세컨드라이브러리에서 약 2시간 동안 열렸고, 멤버십 회원 중 당첨된 가족들이 참여했다. 강의는 임신·출산·육아 전문 교육 회사 비커밍맘스쿨 소속 김지연 강사가 진행했다.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유기농 원단 배냇저고리와 손싸개 세트로 구성된 DIY 키트를 제공했다. 이들은 태명과 로고를 자수로 새기고 세상에 하나뿐인 배냇저고리를 완성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이 밖에 웰컴 간식키트와 모이몰른 배냇저고리 제공, 경품 럭키드로우 등 풍성한 현장 이벤트도 마련됐다. 모이몰른은 이번 클래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고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하반기에 계획 중인 '우리 아이 첫 번째 등원룩 만들기' 클래스를 비롯해 애착 인형,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만들기 등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체험 행사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한세엠케이 관계자는 "핵심 타겟층을 대상으로 글로벌 베이비웨어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모이몰른은 자연친화적 소재, 우수한 품질,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성한 다채로운 라인업을 선보이며 국내외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미국 등에서 활발하게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며 글로벌 베이비웨어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moimoln

모이몰른, '노티드 콜라보 여름 컬렉션' 출시

한세엠케이(각자대표 김지원, 임동환)가 전개하는 유아동 패션 브랜드 '모이몰른'이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노티드(Knotted)'와 함께 협업한 '노티드 콜라보 여름 컬렉션'을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 출시한다. 모이몰른은 론칭 10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의 고객 사랑에 보답하고자 노티드와 협업을 기획했다. 특히 이번 '노티드 콜라보 여름 컬렉션'은 유아동복 브랜드와 처음으로 진행하는 이색적인 협업으로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번 컬렉션은 노티드의 시그니처 스마일과 크림버니, 핑크베어 캐릭터를 담아 깜찍하면서도 키치한 감성이 묻어나는 제품들로 구성했다. 귀여운 표정의 턱받이가 포인트인 바디수트와 세트로 구성된 캡모자, 모이몰른 특유의 유니크한 무드가 돋보이는 반팔 상하세트는 선물용으로도 안성맞춤이다. 또한 얇은 소재의 바람막이와 입체 귀 디자인이 돋보이는 버킷햇, 편하게 입기 좋은 실내복 등은 여름 데일리룩으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다. 이외에도 노티드 캐릭터를 활용한 미니백, 핑크 컬러 클로그 샌들도 함께 선보이며 아이들의 여름 시즌 스타일링을 돕는다.

노티드 콜라보 여름 컬렉션은 모이몰른 전국 오프라인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 '스타일24'에서 찾아볼 수 있다. 출시 기념으로 이번 협업 제품을 포함해 10만원 이상 구매 시 한정판 노티드 콜라보 우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증정하며 재고 소진 시에는 행사가 종료된다.

모이몰른 화보

moimoln

in the summer

PLAYKIZ PRO

플키매니아

MARCH

조던MVP후디

APRIL MAY

조던쿨다운드롭반팔티셔츠

조던레이어드반팔티셔츠

조던져지세트

JUNE

LEVI'S KIDS MAGAZINE

HAPPY SUMMER

올해 패션 트렌드 중 하나인 블록코어룩의 완벽한 선택!
유니폼세트로 여름 패션스타일의 완성도를 높여보세요.
힙하면서도 스포티한 무드가 특징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착용하기 좋은 셋업이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청 컬러의 데님 세트와 함께
캐주얼하면서도 자유분방한 스타일을 완성해 보세요.
트렌드에 구애받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룩에
활용하기 좋답니다!

리바이스키즈가 '제3회 데님 업사이클링 클래스'를 개최했다.

리바이스키즈, 제3회 '데님 업사이클링 클래스'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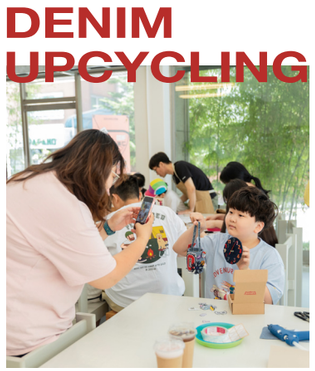
'브링 유어 올드 데님' 프로모션 통해 수거한 헌 데님 사용

한세엠케이(각자대표 김지원, 임동환)의 아메리칸 키즈 데님 브랜드 리바이스키즈가 '제3회 데님 업사이클링 클래스'를 개최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리바이스키즈 데님 업사이클링 클래스는 헌 데님을 활용해 업사이클링 제품을 직접 제작하며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행사다. 최근 친환경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회적 트렌드가 확산되며 다양한 업사이클링 행사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실시된 이번 데님 업사이클링 클래스는 지속 가능한 업사이클 문화를 만들어가는 소셜 플랫폼 '마켓발견'과 함께 진행했다. 지난 1일 강남의 한 카페에서 열렸으며,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0팀의 가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클래스를 통해 업사이클 데님 시계 및 연필꽂이를 만들며 업사이클링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재료로는 지난 4월 진행된 '브링 유어 올드 데님(BRING YOUR OLD DENIM)' 프로모션을 통해 수거된 헌 데님 의류가 활용됐다.

또한 리바이스키즈 메쉬볼캡과 함께 리유저블컵, 필통, 문구 키트, 스트링 백 등 총 8종으로 구성된 기프트를 제공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리바이스키즈는 앞으로도 올드 데님 수거 프로모션 및 데님 업사이클링 클래스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친환경 소재의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나가며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한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세엠케이 관계자는 "이번 리바이스키즈의 데님 업사이클링 클래스는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직접 실천하는 특별한 경험과 친환경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에 동참하며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세엠케이는 패션 전문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 가치를 중심으로 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리바이스키즈는 친환경 비건 소재의 리오셀 원단을 비롯해 생산 과정에서 농약이나 화학 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은 오가닉 코튼, 리사이클 소재 리프리브(REPREVE) 등 친환경 제품을 적극적으로 선보이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리바이스키즈매거진 2024년 5월호

BATWING CROP T-SHIRT

5월의 포인트 컬러는 레드 컬러! 더워진 날씨에 추천하는 **리바이스키즈 배트윙 크롭티!** 강렬하고 예쁜 레드 컬러로 어떤 하의와 매치해도 **PERFECT!** 리바이스키즈 **화이트 로고 포인트**로 더욱 트렌디한 코디 완성!

리바이스키즈매거진 2024년 6월호

AOP T-SHIRT
헤드라인 인디고 스웻쇼츠

6월에는 존재감을 확 드러낼 수 있도록 패턴 디자인이 담긴 **AOP 티셔츠 PICK! 편안한 착용감은 기본! 청량한 컬러**로 시원하고 멋진 코디를 완성할 수 있어요! 여기에 **헤드라인 인디고 스웻쇼츠** 매치로 여름 느낌 물씬 풍기는 **여행룩** 완성!

LOVE EARTH KEEP CLEAN!

컬리키즈만의 의미 있는 4월을 보내는 방법은 바로 지구를 사랑하고 환경 보호 실천하기!
멸종 위기 동물인 사막여우, 너구리, 판다 캐릭터가 새겨진 투톤소매배색티셔츠와
친환경 소재의 애니멀폴리냉감티셔츠까지 컬리키즈가 되어 지구를 지켜라!

위글위글 콜라보

여름 컬렉션 2차 출시 소식

위글위글과 함께하는 컬리수만의 여름 바캉스룩!
트렌디 하면서도 최고의 바캉스를 선물해줄 바캉스 아이템 2가지를 소개합니다~
① 톡톡 튀는 컬러감과 패턴, 시원하고 편안한 핏과 소재의 위글위글바캉스 세트
② 선인장 나염지가 포인트인 위글위글나염나시티셔츠로 센스 있는 바캉스룩 완성!
위글위글 콜라보 상품은 전국 컬리수 매장 및 스타일24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ILLUMINATION PRESENTS minions

© UCS LLC

x CURLYSUE

미니언즈의 매력이 가득 담긴 컬리수X미니언즈
콜라보 아이템으로 우리 아이의 옷장을 가득 채워주세요!

- 데님, 면바지, 레깅스와 찰떡궁합! 스티치 포인트가 돋보이는 미니언즈 아노락 셋업
- 귀여운 캐릭터들이 숨어 있는 데일리템 미니언즈 심플 티셔츠와 절개 파이핑 티셔츠
- 미니언즈 아노락에 미니언즈 카툰 후디를 레이어드하면 스타일리쉬한 레이어드룩 완성!
- 활동성 좋은 유니크한 미니언즈 절개 상하복과 미니언즈 블럭 상하복으로 마무리

무더위를 날려버릴 여름 제철 음식

GOURMET ESSAY

무더위와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입니다.
입맛도 없고 더워서 요리하기가 귀찮아지는 요즘, 시원한 여름 제철 재료로 집밥을 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호에 알려드릴 요리는 여름 제철 재료를 이용해 불 사용은 최대한 줄이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준비했습니다.
든든한 솥밥, SNS에서 유행하는 샐러드, 시원한 냉국도 있으니 따라 해보시고 올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 초당옥수수솥밥

INGREDIENTS	HOW TO COOK
초당옥수수 2개	· 쌀은 3번 정도 씻은 후 20분간 불린다
쌀 2컵	· 옥수수를 흐르는 물에 씻은 다음 칼로 알을 자른다
물	· 불린 쌀과 물의 비율을 1대 1로 넣고 끓인다
소금	· 쌀이 끓으면 쯔유 1큰술, 옥수수알을 넣고 뚜껑을 닫아 약불에 10분간 밥을 한다
굵은 후추	· 불을 끄고 뜸을 들인 후 소금 후추를 약간 뿌리고 버터를 넣어 쓱쓱 비벼 그릇에 담는다
버터 1큰술	
쯔유 1큰술	

여름 하면 옥수수의 계절입니다. 그중에서도 초당옥수수는 달큰하니 맛있고 톡톡 터지는 식감이 좋습니다. 저는 초당옥수수로 솥밥을 지어먹는데요, 솥밥에 소금과 후추, 버터로 간을 해서 비벼먹으면 따로 간장이나 소스 양념 없이 담백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솥밥요리가 완성됩니다. 다른 반찬 없이 밥만 먹어도 맛있고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곁들여서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02 참외샐러드

INGREDIENTS	HOW TO COOK
참외 1개	· 참외는 껍질을 까고 반 잘라서 속을 파낸다
딜(허브)	· 파낸 속은 버리지 않고 채에 받쳐 참외 즙을 받아낸다
굵은 후추	· 참외 즙에 올리브오일, 애플사이다 비네거, 꿀 약간을 섞어 드레싱을 만든다
애플사이다 비네거	· 접시에 얇게 썬 참외를 올리고 만들어 놓은 드레싱을 붓는다
올리브오일 3큰술	· 딜과 후추로 마무리를 한다
꿀 약간	

요즘 SNS에서 눈에 많이 띄는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참외샐러드인데요. 참외로 샐러드를 해 먹는 것이 낯설 수 있겠지만 그냥 후식으로만 먹던 참외를 샐러드로 만들면 와인 안주로도, 에피타이저로도 잘 어울리고 좋습니다. 취향에 따라 수박이나 루꼴라를 곁들여서 만들어도 좋으니 냉장고에 남아있는 참외가 있다면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03 오 이 크 래 미 초 밥

INGREDIENTS

오이
밥 1공기
배합초 1큰술
크래미
마요네즈 3큰술
후추 약간
설탕 약간

HOW TO COOK

- 오이는 필러(감자 깎는 칼)로 얇게 슬라이스 한다
- 밥에 배합초를 섞어서 초밥을 만든다
- 크래미는 결대로 잘게 찢어 마요네즈, 후추, 설탕으로 버무린다
- 동그랗게 만든 밥에 오이를 감싸내고 위에 버무린 크래미를 올린다

여름에 입맛을 돋워주는 간단하고 특별한 메뉴를 만들어보고 싶다면 오이크래미 초밥을 추천드립니다. 만드는 게 간단할 뿐만 아니라 요리 과정에서 불을 쓰지 않아 더욱 시원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오이와 크래미는 칼로리가 낮은 재료이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배에 포만감을 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답니다. 초밥 위에 올리는 크래미 무침은 샐러드와 곁들여 먹어도 되니 넉넉히 만들어보세요.

04 메 밀 소 바

INGREDIENTS

메밀면(냉동)
쯔유
물과 얼음
무
고추냉이
구운 김
쪽파 약간

HOW TO COOK

- 쯔유는 물과 희석해 놓는다 (제품 뒷면의 메밀소바용 비율을 참고하세요)
- 면을 끓는 물에 30초 정도 (건면은 5분정도) 삶은 뒤 흐르는 물에 헹궈낸다
- 무는 갈아놓고 구운 김과 쪽파는 잘게 썬다
- 그릇에 면과 쯔유 국물을 담고 간 무, 김, 쪽파, 고추냉이를 올린다

여름철 대표적인 면 요리인 메밀소바입니다. 사 먹으면 시원하고 맛있지만 양이 적어서 아쉽기도 하고 제 입맛에 맞게 간을 조절하기 어렵잖아요. 이럴 때 맛있는 쯔유만 있으면 우리 집도 메밀소바 맛집이 될 수 있답니다. 고명으로 간 무와 고추냉이, 김만 올려도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 집에서 내 입맛에 안성맞춤인 메밀소바를 만들어보세요.

05 오 이 냉 국

INGREDIENTS

오이 1개
양파 1/2개
깻잎 3장
깨 약간
물 600ml
소금 1큰술
설탕 4큰술
식초 6큰술

HOW TO COOK

- 오이와 양파 깻잎은 잘게 채 썬다
- 넓은 볼에 오이와 양파를 넣고 물을 붓는다
- 소금, 설탕, 식초를 순서대로 넣고 잘 섞어서 간을 본다 (입맛에 맞게 조절가능)
- 다 만들어진 냉국을 그릇에 담고 깻잎과 깨를 뿌려서 마무리한다

여름철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로 빠질 수 없는 오이냉국입니다. 오이냉국의 새콤달콤한 국물과 오이의 아삭함은 한낮의 더위도 싹 잊을 수 있게 해 준답니다. 저는 오이냉국에 미역보다는 채 썰은 오이와 양파, 약간의 깻잎을 넣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냉국 향도 더 좋아지고 다 먹을 때까지 질리지 않아 더욱 퀄리티 있는 요리를 먹는 기분이 듭니다. 냉장고에 냉동 오징어가 있다면 살짝 데쳐서 같이 넣어도 맛있답니다.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오이냉국의 황금비율을 참고하셔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약력
이정웅은 '요리요정 이팀장'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와 각종 기고를 통해 활약하며 쉽고 맛있는 요리를 전파 중이다. 궁중음식연구원 입문, 의궤, 고조리서 과정을 이수했으며 궁중음식 체험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했다. 한라식품 총괄이사로 재직 중이며 쿠킹스튜디오 '요리요정 이팀장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다. 요리하는 즐거움과 먹는 즐거움을 아는 이 시대의 味(미)남으로 불리고 싶은 바람이 있다.

한세실업
수출5A본부3부2팀
조예진 선임

입맛 자극! 대동맛지도

을지로 콘부

처음 라멘의 매력에 빠진 곳이자 라멘을 즐겨 먹지 않는 사람도 사랑에 빠지게 하는 맛집입니다. 일본 현지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 매장에 퓨전식이라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라멘을 먹을 수 있어요.

식당명	콘부
주소	서울 중구 수표로 42-19 1층 콘부
추천 메뉴	봉골레 소유라멘

뇨끼테리아 피우

유명해지면 속상할 것 같은 저만의 이탈리안 뇨끼 맛집입니다. 저는 벌써 3번째 방문한 곳인데, 전 메뉴 다 맛있어서 뇨끼 생각나면 무조건 가는 곳입니다. 사장님이 뇨끼에 워낙 진심이셔서 지금까지 이곳만큼 입안에서 녹는 뇨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소개팅 장소로도 모임 장소로도 좋으니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하지만 자주 가지는 말아 주세요. 제가 못 가니까요~

식당명	뇨끼테리아 피우
주소	서울 마포구 동교로 212-8 1층
추천 메뉴	고르곤 크림 뇨끼, 피우 어니언 스프

산청숯불가든 을지로

유튜버 쯔양님의 맛집으로 유명해서 가봤는데, 왜 유명한지 한 입에 알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웨이팅이 길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다들 을지로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산청숯불가든으로 가세요!

식당명	산청숯불가든 을지로
주소	서울 중구 을지로 114-6 1층
추천 메뉴	삼겹살 재래식 소금구이, 항정살

바다회사랑

매년 겨울철 방어 시즌이 되면 가는 곳이에요. 엄청 두툼한 방어 회의 식감이 일품이죠. 꿀팁이라면 1호점은 웨이팅이 길어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2호점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포장도 금방 준비되니 포장해서 집에서 편히 즐겨도 됩니다!

식당명	바다회사랑
주소	서울 마포구 동교로27길 60
추천 메뉴	겨울철 방어

최강금 돈까스

주말에 돈가스가 먹고 싶을 때 생각나는 곳은 단연코 합정 최강금 돈까스예요! 담백한데 바삭거리고 고기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최고의 맛집이랍니다. 등심, 안심 둘 다 꼭 드셔보시고, 웨이팅이 있으니 오픈 시간 맞춰서 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식사 후 나오는 요거트도 찰떡 궁합입니다.

식당명	최강금 돈까스
주소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3길 31-30
추천 메뉴	등심, 안심 둘다 시켜드세요 ^^

중앙감속기

성수에 최현석 셰프가 하는 중식 퓨전레스토랑입니다. 대체로 다 맛있고, 맛이 독특해서 잊을 수 없는 맛집이에요. 성수에서 맛집을 찾는다면 여기로 가보세요~! 어향가지와 부라타 치즈 튀김은 갈 때마다 시켜먹는데 매번 감탄합니다. 그 외에도 봉골레 울면과 유로피안 동파육을 추천합니다.

식당명	중앙감속기
주소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6길 7-1 1층
추천 메뉴	어향가지, 부라타치즈 튀김, 봉골레울면, 유로피안 동파육

공연과 '썸' 타러 대학로로 오세요!

예스24, 3천 명 관객 초대하는 '썸대학로' 프로모션 진행

– 더 많은 관객에게 소극장 공연 소개하고 대학로에 활기 불어넣고자 기획
– 6월 2일까지 응모 진행… 사연 응모와 seypay 결제 응모 두 가지 방식
– 총 3천 명 추첨해 〈바스커빌 : 셜록홈즈 미스터리〉, 〈이블데드〉 등 6개 공연에 초대

예스24 '썸대학로' 프로모션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3천 명의 관객을 대학로 공연에 초대하는 '썸대학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썸대학로'는 대학로 소극장 공연을 더 많은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나아가 대학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예스24가 준비한 프로모션이다. 그 이름만으로 상징성을 지닌 '대학로'라는 공간과 대학로로 표현되는 연극·뮤지컬 공연들에 대해 '썸' 타는 듯한 마음을 담아 기획했다. 예스24는 '썸대학로' 프로모션으로 총 3천 명의 관객을 추첨해 다양한 대학로 공연에 초대한다. 응모 방식은 사연 응모와 seypay 결제 응모 두 가지로 진행되며, 예스24 회원이라면 누구나 각각 1회씩 총 2회 응모할 수 있다. 사연 응모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내가 생각하는 대학로란?'을 주제로 연극·뮤지컬 관람 경험에 대한 사연을 '썸대학로' 프로모션 페이지에 남기면 된다. 사연 응모 시 공연 초대 추첨과 별개로 공연 할인쿠폰, YES상품권 1천원권, 크레마클럽 1개월 이용권 등 경품을 즉석에서 랜덤 지급한다.

또한, 예스24현대카드로 예스24에서 5만원 이상 seypay 결제 시에도 응모가 가능하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썸대학로'를 SNS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 시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YES포인트 3천원을 지급한다. '썸대학로' 프로모션은 오는 6월 2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는 6월 11일 발표된다. 당첨된 3천 명의 회원은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기간 내 연극 〈빵야〉, 〈클로저〉, 〈바스커빌 : 셜록홈즈 미스터리〉, 〈일리아드〉와 뮤지컬 〈이블데드〉, 〈어쩌면 해피엔딩〉을 관람할 수 있다.

예스24 ENT사업본부 이희승 이사는 "예스24는 대학로에 예스24스테이지에 이어 연극·뮤지컬 전문 공연장 예스24아트원을 새롭게 개관해 다채롭고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며 "대학로 소극장 공연은 물론 젊음과 설렘, 예술로 가득한 대학로 문화 공간의 매력을 더 많은 관객들에게 소개하고자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예스24,

예스24 X 동네책방 '콜라보 홈배송' 서비스 오픈

– 지역 서점 및 동네책방에 원하는 책이 없을 때 원하는 주소지로 배송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현재 전국 약 500여 곳 서점에서 콜라보 홈배송 서비스 지원… 추후 확대 예정

예스24 X 동네책방 '콜라보 홈배송' 서비스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전국 동네책방과 연계해 예스24 X 동네책방 '콜라보 홈배송' 서비스를 시행한다. '콜라보 홈배송' 서비스는 지역 서점 및 동네책방을 방문한 고객들이 원하는 책이 없을 때 해당 서점에서 결제하고 원하는 주소지에서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예스24의 재고와 배송 시스템을 활용해 고객들이 다양한 책을 한층 편리하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스24는 예스24 책방콜라보 서비스에 가입한 전국 모든 지역 서점이 이번 콜라보 홈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예스24가 콜라보 홈배송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점은 전국 약 500여 곳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광 예스24 법인서비스팀 팀장은 "좋은 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디에서나 독자와 손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콜라보 홈배송'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며 "고객들이 읽고 싶은 책을 더욱 빠르고 편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추후 연계 서점을 꾸준히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스24,

영남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천마아트센터와 MOU 체결

–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 관계 구축
– 예스24, 천마아트센터 대중 공연의 오픈 좌석 50% 판매 예정… 고객 접점 확대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와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7일 천마아트센터 관장실에서 개최된 체결식에는 예스24 ENT사업본부 이희승 이사, 조무호 부장, 김윤하 대리와 천마아트센터 최윤희 관장, 하정애 팀장, 손현욱 부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 및 저변 확대를 위해 긴밀한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천마아트센터에서 진행하는 대중 공연의 오픈 좌석 50%를 '예스24 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적자원 및 시설, 장비 등을 공동 활용하고 기타 공동 발전에 관한 사항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호 교류 및 협력하기로 했다. 예스24와 업무협약을 맺은 천마아트센터는 대극장과 갤러리, 전시장 등을 갖춰 공연과 전시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아트아카데미 상설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 및 육성하는 등 지역 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예스24 ENT사업본부 이희승 이사는 "천마아트센터에서 선보이는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를 예스24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고객 접점을 확대하는 한편, 향후 양 기관의 적극적인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전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스24,

윤동주문학관에 굿즈 및 도서 기부 진행

– 지난해 이어 올해도 기부 진행… 1,650개의 다양한 굿즈와 200여 권의 도서 기부

– 윤동주문학관 관련 행사 및 방문객 이벤트 등 다양한 문화 사업에 활용 예정

예스24 윤동주문학관 기부 굿즈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윤동주 문화 사업에 자체 제작 굿즈 및 도서를 22일 기부했다. 예스24는 지난해 8월 종로문화재단 윤동주문학관에 윤동주 관련 굿즈를 전달한 데 이어, 올해도 한층 풍성한 굿즈와 도서를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표 근현대 시인 윤동주 작가를 기억하고, 독자들에게 보다 다채로운 경험을 전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기부 물품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판본〉 얼리리더 체인 배지와 와펜을 포함해 화병, 크리스탈 문진, 포스터 등 총 1,650개의 굿즈들이다. 또한, 소설, 시, 어린이 책 등 총 200여 권의 도서도 함께 기부했다. 기부된 굿즈는 윤동주문학제 행사 및 방문객 이벤트 등 다양한 문화 사업에 활용되며, 도서는 윤동주문학관 내 조성된 '복합문학공간 별뜨락'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될 예정이다.

김다현 예스24 상품기획파트 파트장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도 윤동주문학관에 기부를 진행하게 되어 뜻깊고, 예스24 굿즈와 도서가 윤동주문학관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예스24는 앞으로도 도서·문학 등 다양한 문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독자들이 직접 뽑는 '올해의 젊은 작가'

예스24, '2024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온라인 독자 투표 진행

– 올해 10회째 맞은 예스24 대표 문화 행사… 김멜라, 박상영 등 젊은 작가 12명 후보 올라

– 6월 17일부터 7월 14일까지 매주 1회씩 총 4회 투표 가능… 매 투표 시 리워드 지급

– 특별 굿즈 증정 및 SNS 공유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 함께 실시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2024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를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를 오는 7월 14일까지 진행한다. 100% 독자 참여로 이루어지는 예스24의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투표는 문학 활동을 갓 시작한 젊은 작가들을 소개하고 보다 많은 독자들과의 소통을 돕고자 마련됐다. 2015년부터 매년 진행돼 올해로 10회째를 맞으며 예스24의 대표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후보자는 총 12명으로, 첫 문학 작품을 출간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작가들이다. 가나다순으로 김멜라, 김선오, 김지연, 김화진, 단요, 박상영, 박서련, 박참새, 서이제, 성해나, 조예은, 청예 작가가 후보에 올랐다. 온라인 독자 투표는 6월 17일부터 7월 14일까지 총 4주간 진행되며, 매주 1회씩 총 4회 투표가 가능하다. 매 투표 참여 시 리워드가 지급되며, 4회의 투표를 모두 완료할 경우 총 3천원의 YES상품권과 크레마클럽 30일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예스24는 이번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투표 행사를 기념하는 특별 굿즈를 준비했다. 후보 작가 12명의 대표작의 문장이 담긴 책갈피로, 후보 작가들의 작품을 포함해 이벤트 도서 구매 시 증정한다. 또한, 투표 완료 페이지를 예스24 오프라인 중고·신간 서점 또는 예스24와 협업 중인 동네책방에 제시해도 굿즈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자신이 응원하는 작가와 작품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젊은 작가 영업왕을 찾습니다' SNS 공유 이벤트도 실시한다. 예스24 공식 X(구 트위터)에서 나의 '최애' 작가를 리트윗(RT)하거나 추천 코멘트와 함께 인용 리트윗하면 추첨을 통해 풍성한 경품을 선물한다.

문학의 힘을 믿는 독자들과 함께
한국 문학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를 소개합니다

2024.06.17. ~ 07.14.

예스24 '2024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투표 행사

책은 일용할 양식이다

emart24 × yes24

2024년 예스24와 이마트24가 만났습니다!

2024년 예스24는 편의점 이마트24와 협업하여'일상 속에서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을 콘셉트로, 한 해 동안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 달콤한 첫만남 프로모션

이마트24에서 1월 대표 과일
딸기 제품 사면 크레마 모티프 증정!

2월 책장셰프 콘테스트 & 콜라보 도시락 출시

책 속 음식이 실현되는 아이디어 콘테스트부터
〈도둑맞은 집중력〉 콜라보 도시락 출시

3월 콜라보 시즌컵 &디저트 출시

책 속 구절이 담긴 향긋한 커피와
달콤한 초코쿠키슈 출시

5월 미니책장 설치 이벤트

이마트24 수도권 30곳에 미니책장을 설치해
일상 속 독서력 up!

7월 CJ 햇반컵반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에디션 출시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대표 가정식과 세계문학의 만남!

9월 책장셰프 콘테스트 1등 제품 출시

꿈꾸던 책 속 음식이 현실로!
〈달러구트 꿈 백화점〉 심신안정쿠키가 찾아옵니다

책은 일용할 양식이다 yes24 × emart24

민음사 세계문학 가정식

한 컵에 담긴 필수 교양!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3종의 표지가 담긴 CJ햇반컵반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전국 이마트24·이마트·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만나 보실 수 있어요.

EVENT

컵반 도서 제목으로 N행시를 지어주시면
CJ햇반컵반 세계문학전집 에디션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8월 31일까지
이벤트 상품: CJ햇반컵반 세계문학전집 에디션

이벤트 참여하기

마음도, 몸도 든든해지는 컵반으로
팀원들과 점심시간 보내보세요!
예스24 브랜드마케팅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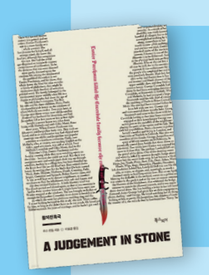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기억에 남는 책들

오은의 옹기종기 (400회) 〈어떤,책임〉 마지막 방송

불현듯(오은): 오늘은 〈어떤,책임〉 마지막 방송을 기념하여 2018년부터 올해 2024년까지 소개한 책들 중에서 기억에 남은 책들을 연도별로 한 권씩 일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캘리: 다시 얘기하고 싶은 책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중, 지금 많이들 좋아하시는 책도 있어서요. 이 시간에는 다시 살려보고 싶은 책 위주로 골라봤어요. 2018년에 소개한 책 중에서는 『활자잔혹극』을 꼽아봤습니다. 절판이었다가 최근에 복간이 됐거든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아직도 첫 문장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유니스 파치먼은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기 때문에 커버데일 일가를 죽였다."가 첫 문장이에요. 결론을 첫 문장에 다 해버리고 소설을 진행시키는 힘도 정말 대단하고요. 여름이니까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불현듯(오은): 저는 김성라 작가님의 『고사리 가방』이 생각나요. '조꼬띠' 기억나세요? 되게 예쁜 말이잖아요. '가까이'라는 뜻이고요. 책에 너무 확확 걷지 말고, 발 가까이도 잘 살펴야 한다는 대사가 나오는데요. 많이들 멀리 가야 된다, 높이 봐야 된다고 말하지만 아름다운 것들은 가까이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준 책이에요. 2019년은 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정원 작가님의 『올해의 미숙』이에요. 사실 저한테는 올타임 베스트예요.(웃음) 이번에 다시 보니까 미숙한 것을 능숙하게 만드는 게 삶인 것도 같지만 어떻게 보면 미숙한 것을 미숙한 채로 놔두는 것, 미숙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삶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1990년대부터 2000년대를 관통하는 문화를 다시 볼 수 있는 즐거움도 있으니까요.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캘리: 저는 『푸른 눈, 갈색 눈』이라는 책을 꼽았어요. '뼈 때리는 책'이라는 주제 때 소개를 했더라고요. 이 책은 읽은 지 정말 오래됐는데 정말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생생하게 기억나는 책이에요. 늘 관심을 두는 것이 차별의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미국의 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급의 학생들을 푸른 눈을 가진 학생과 갈색 눈을 가진 학생으로 나누는 내용이에요. 어느 날은 갈색 눈, 어느 날은 푸른 눈을 가진 사람이 더 우월하다는 전제로 하루를 지내는데요. 놀랍게도 짧은 시간 안에 엄청 폭력적인 상황이 펼쳐지죠. 지금까지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실험 같아요.

불현듯(오은): 2020년으로 갑니다. 2020년은 캘리님부터 소개를 할게요.

캘리: 『인간 없는 세상』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 책은 지금 읽어도 너무 좋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차근차근 다룬 논픽션인데요. 소개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이 책은 너무나 현재적이에요. 오히려 점점 더 책에서 보여주는 풍경들이 피부에 와 닿는 면이 있습니다.

불현듯(오은): 저는 프랑소와 엄님이 추천하셨던 『여름의 잠수』를 꼽아봤어요. 이 그림책을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림책은 왠지 해피 엔딩일 것 같고,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든 해결해내서 어린이에게 성취감을 주면서 아름답게 끝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다르거든요. 『여름의 잠수』는 빛이 있으면 어둠도, 그림자도 있는 것처럼 삶도 그렇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삶 안의 어두움과 슬픔을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할 때 가장 적절한 책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2021년 책은 캘리님께서 추천해주셨고 저도 비슷한 시기에 읽고 너무 좋았던 『마이너 필링스』입니다. '마이너 필링스'는 작은 감정들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으나 더 깊숙이 들어가면 소수자의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어떤,책임〉의 6년 이상 진행되어 온 시간들이 어쩌면 마이너를 헤아리는 마음들로 가득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책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책이 『마이너 필링스』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캘리: 저는 『막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림책이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막두'라는 중년 여성이 주인공이고요. 막두는 10살 때 한국전쟁이 발발해서 전쟁을 피해 북에서 남으로 온 피난민이었어요. 당시 새해 계획 세우기 전에 읽으면 좋을 책으로 추천했는데요. 매일 성실하게 하루를 사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한 책이었기 때문이에요.

불현듯(오은): 제가 꼽은 2022년의 책은 이혜미 시인이 쓴 『식탁 위의 고백들』이라는 책이고요. 제가 최근에 신문에 발표한 칼럼 제목이 '요리와 글쓰기'였어요. 종일 글을 쓰려고 앉아 있었는데 안 풀린 거예요. 그 날, 작은 기쁨이라도 있어야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괜히 밤에 밑반찬을 만들어 놓고 잔 거죠. 그러면서 글쓰기와 요리가 닮아 있으면서도 이렇게나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쓴 칼럼인데요. 『식탁 위의 고백들』을 다시 읽으면서 그 마음을 많이 되새기게 되었어요.

캘리: 저는 『꿈꾸고 사랑했네 해처럼 맑게』라는 책을 2022년에 소개한 책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영애 선생님을 결국 〈책읽아웃〉이 끝날 때까지 게스트로 못 모셨어요. 정말 원통합니다.(웃음) 선생님은 '모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말이 너무 싫다고 하시면서 괴테가 노년에 쓴 이 말을 함께 인용하시죠. '그대 일에 있어서 다만 바른 일만 행하라. 다른 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언제나 제가 취하고 싶은 태도이고요. 늘 잃고 싶지 않은 태도예요.

불현듯(오은): 2023년의 책을 제일 빨리 골랐습니다. 얀 그루에 작가님의 『우리의 사이와 차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읽자마자 지평이 넓어지는 게 느껴지는 책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의 삶을 기록할 수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이끄는 방식도 있구나,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 책을 읽는 궁극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더 많은 상상력. 옵션이 많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즐거움도 있고, 거기서 오는 자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해방감을 만끽하고 싶다면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캘리: 제가 2023년의 책으로 소개하려고 한 책이 『짐승일기』인데요. 이 책을 소개하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지금 불현듯님이 다 해주셨어요. 『짐승일기』를 읽으면서 저 역시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기록을 볼 수 있다니, 너무 귀하다고요. 불현듯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은 작가님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이야기거든요. 제가 그 어떤 순간에도 읽고 쓰는 일을 이어나가야겠다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책이에요. 2024년의 책은, 최근에 소개된 책이기도 하고요. 저의 현재를 많이 지배하고 있는 이슈인데요.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을 꼽아봤어요. 지금도 매일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책을 비롯해,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제노사이드 이슈에 관심을 갖는 것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세계 시민에게 중요한 의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덧붙여서 마지막 방송이니까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책을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소한 일』이라는 소설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과 같이 보는데 제 안에서 크게 공명이 되었어요.

불현듯(오은): 저는 마지막으로, 희정 작가님의 『뒷자리』 소개를 하겠습니다. 포도밭 출판사 대표님이신 최진규 선생님께서 출연하셨었죠. 이 책은 사건들의 지난 흔적을 되짚는 기록인 동시에 세상의 뒷자리에서 삶의 뒷자리를 더듬어 보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묵은 감정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사건은 늘 현재 진행형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 준 책이였고요. 생각해보면 글 쓰는 사람의 위치는 앞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뒷자리인 것 같거든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사람이 보는 그 장면에서 글이 시작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요. 스스로를 뭔가 북돋아 주기 위해서라도 뒷자리라는 책을 늘 눈에 보이는 곳에 꽂아 두고 있어요.

캘리: 그동안 〈책읽아웃〉에서 소개한 책의 목록 자체가 엄청난 재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들만 꼼꼼하게 읽어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엇보다 매번 책임감을 느끼면서 녹음했지만 그 무게가 온전히 나만의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 듣는 분들이 함께 이 무게를 나눠 지고 걸어왔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고요. 방송이 끝나도 읽고 말하고 쓰는 일을 멈추지는 않겠지만요. 그래도 〈책읽아웃〉에서 읽고 쓰고 말하는 일을 경험했다는 것이 정말 제 개인의 인생에도 엄청나게 영광이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현듯(오은): 3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의 시기를 함께 했는데요. 읽는 것이 나를 구성하는구나, 지금 읽고 있는 것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지금 나의 몸과 마음을 만들어 나가는구나를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떤,책임〉은 오늘로 막을 내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것을 읽을지 결정하고, 그것들을 읽는 동안 자신이 변화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한 권의 책을 읽고 나서, 이것을 소화시키고 곱씹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면 뭔가 다음 날 눈 떴을 때 내가 약간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순간들이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보고 싶어요.

7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은 분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어떤,책임〉은 오늘로 책임을 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책을 계속 읽다가
어디선가 만날 자리가 있으면 또 한바탕 책 수다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D 추천도서, 추천공연,
SNS 엿보기, 대중문화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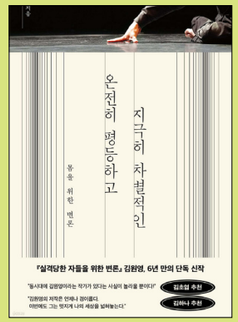
CULTURAL SHOP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문화다방

recommended book
PD 추천도서

권문경

만화 〈동경일일 1~3 세트〉
마츠모토 타이요 그림,이주향 역 / 문학동네

중년 만화 편집자 '시오자와'를 통해 전하는 '만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애정.



손민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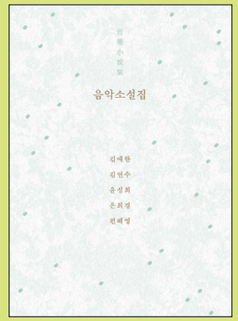
인문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
김원영 저 / 문학동네

몸이 품은 가능성, 춤의 역사, 배리어프리에 관한 주제에 대해 김원영만이 쓸 수 있는 글을 담았다.

김상근

자기계발 〈나를 살리는 습관, 죽이는 습관〉
조승우 저 / 알에이치코리아(RHK)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균형을 이루며 건강하게 이끄는 인생 습관을 갖도록 안내하는 책.



김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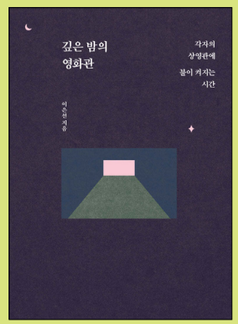
소설 〈음악소설집〉
김애란, 김연수, 윤성희, 은희경, 편혜영 저 / 프란츠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다섯 작가가 이야기로 풀어낸 음악을 통해 마주한 결정적 순간.

김현주

어린이 〈서로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말〉
김종원 글,나래 그림 / 상상아이(상상아카데미)

말에 담긴 다정한 마음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따뜻한 말로 서로의 관계를 가꾸는 힘을 키워준다.



안현재

예술 〈깊은 밤의 영화관〉
이은선 저 / 클로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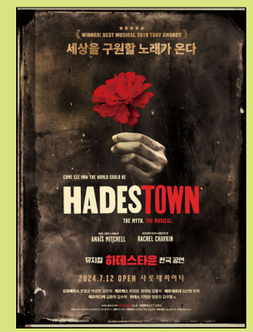
영화 저널리스트 이은선의 요즘 영화에 대한 단정하고 극진한 기록.

recommended performance
추천공연

페스티벌

부산국제록페스티벌
2024. 10. 04.~2024. 10. 06.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2024. 08. 02.~2024. 08. 04.
송도달빛축제공원



뮤지컬

하데스타운
2024. 07. 12.~2024. 10. 06.
샤롯데씨어터

젠틀맨스 가이드: 사랑과 살인편
2024. 07. 06.~2024. 10. 20.
광림아트센터 BBCH홀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
2024. 09. 07.~2024. 12. 01.
예스24스테이지 3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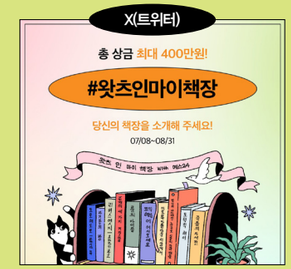
Hot trend SNS
SNS 엿보기

유튜브

일본 출판사 '고단샤' Vlog
'연 매출 1조 5천 억! 일본인이 선망하는 기업!
『진격의 거인』 과 『AKIRA』의 원작 출판사인 '고단샤'에 다녀왔습니다.

2024.06.20

X(트위터)



#왓츠인마이책장 챌린지
예스24가 독자들과 함께 만드는 독서 문화!
당신의 책장을 지금 SNS에 소개해주세요.

2024.07.08

pop culture
대중문화 칼럼

채널예스
[쉽고 재밌게 들려주는 ART STORY]
예스24의 새로운 아트 커뮤니티 ARTIPIO가 들려 주는 ART STORY

아티피오(ARTIPIO)
2024.07.11

쉽고 재밌게 들려주는
ART STORY
(2024.07.11)

AN EASY LOOK AT THE ART MARKET

미술시장 용어가 어렵나요?

**사회 초년생 때 누구나 한 번쯤 업무 용어를 못 알아들어 한참 고민했던 시절!
알고 보면 어려운 의미가 아닐지라도, 나만 모르는 암호인 것처럼 참 생소했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미술시장에서도 각종 용어들을 말하지만,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죠?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대충 고개를 끄덕였던 경험이 있다면, 지금부터 집중!
아티피오에서 익숙하지 않은 미술시장 용어들을 알려드릴게요.**

Q. 프라이머리 마켓? 세컨더리 마켓?

미술시장은 1차 시장에서 처음 선보여져 거래된 작품이 이후, 2차 시장에서 재판매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1차 시장, 2차 시장은 주식이나 채권 금융시장에서도 흔히 쓰이죠. 이는 미술시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1차 시장인 프라이머리 마켓(Primary Market)은 작품이 최초 공급되고 처음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시장에 처음 나오는 순간인 만큼, 작가 또는 작가의 소속 갤러리가 작품 가격을 결정하고,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지를 정하죠. 가장 처음 작가의 작품을 시장에 알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보다는 미술관, 기관에 우선 순위를 두고 판매를 합니다.
2차 시장인 세컨더리 마켓(Secondary Market)은 작가로부터 처음 거래된 1차 시장 이후, 소장자로부터 재판매되는 리세일(resale) 시장을 말하는데요. 때로는 1차 시장에서 첫 작품 공급 시, 2차 시장에서 빠르게 거래가 되지 않도록, 리세일 금지 조항, 이익 공유 조항을 내걸며 판매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재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이는 1차 시장의 가격 책정 방법과 달리, 2차 시장에서는 매매하려는 시점의 시장 상황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1차, 2차 시장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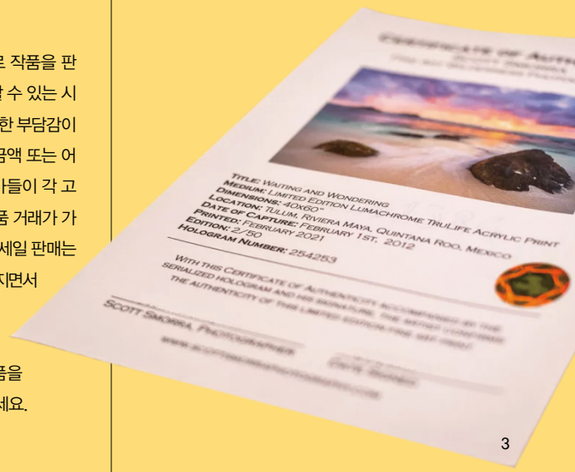
구분	1차 시장 (Primary Market)	2차 시장 (Secondary Market)
목적	새로운 작품 소개	기존 거래 작품에 대한 리세일
거래빈도	제한적 (3–5년 판매 제한)	높음
구매자 유형	미술관, 개인	개인
가격	고정적	수요와 공급,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수혜자	공급자(작가)	소장자(컬렉터)

출처: ARTIPIO

2차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수요가 많은 인기있는 운동화나 명품은 중고가 돼도 재판매 되듯, 해당 작품이 인기있고 또 다른 원하는 사람이 존재해 지속해 2차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작품은 물건처럼 똑같이 찍히지 않기에, 판화가 아닌 이상 세상에 한 점뿐인 작품의 인기가 높을수록 희소성이 높아지겠죠?

Q. PS? 프라이빗 세일?

프라이빗 세일(Private Sale)의 약자이기도 한 'PS'는 경매 회사에서 경매 외의 방법으로 작품을 판매 및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만든 방식으로 작품을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실시간 진행되는 경매를 통할 경우, 유찰에 대한 두려움이나, 낙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PS는 경매와 달리, 낙찰 수수료가 없고 시세와 견주어 비슷한 금액 또는 어느정도 원하는 금액에 판매 및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처럼 경매회사의 전문가들이 각 고객별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1:1맞춤 서비스가 가능하기에, 보다 편리하게 작품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프라이빗 세일(PS)은 1:1로 비밀리에만 진행될까요? 과거 프라이빗 세일 판매는 주로 VVIP고객들을 위한 비공개 전시로 운영했으나, 코로나 펜데믹 이후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그 움직임 또한 달라지고 있는데요. 해외 대형 경매회사인 크리스티와 소더비는 홈페이지에 프라이빗 세일 카테고리를 확대 운영하며, 작품 외에도 다양한 품목들을 공개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세일이 대중화 되기 시작한 것이죠. 언제든 작품을 판매를 원하거나 구매를 희망한다면, 경매회사의 프라이빗 세일(PS)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크리스티 프라이버시 세일 서비스: //www.christies.com/private-sales/about



Q. 프로비넌스?

작품 판매를 의뢰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프로비넌스(provenance)입니다. 그만큼 미술시장에서는 출처, 즉 소장 이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작품이 지나온 경로에 따라 '어떤 기관', '누가' 소장했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고, 이는 작품의 진위(Authenticity) 여부와도 중요하게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문서 또는 작품 후면에 기록을 하고 있고, 확인 가능한 소장처 이력, 경매 기록이나 인보이스(거래 내역), 작품 보증서(COA)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작가에게 선물 받은 작품의 경우, 당시 작품, 작가와 함께 찍은 사진, 편지 등도 프로비넌스로 사용된다는 사실! 이렇듯 프로비넌스를 통해 도난, 약탈, 위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작품의 거래 시 중요한 자료가 되기에, 작품과 프로비넌스는 바늘과 실처럼 떼려야 뗄 수 없답니다.

지금까지 많이 쓰이는 미술시장의 용어들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어려운 교양이라고만 느껴지는 미술시장 이야기. 사실 알고 보면 어렵지 않죠? 아티피오와 함께 미술시장에서의 경험이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길!

1. 소더비 온라인 경매 모습. Sotheby's Facebook image, Photo courtesy of Sotheby's
2. 소더비 뉴욕 프라이빗 세일 "Shuimo/Water Ink: Enchanted Landscapes," 현장의 모습. 출처:Sotheby's
3. A Certificate of Authenticity for the print titled, "Waiting and Wondering" by Scott Smorra

기업의 친환경 활동과 그린워싱 주의보

또래와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고등학생 아들에게 새 운동화의 유효기간은 채 한달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전날 새로 산 운동화를 신고 친구들과 농구 한 게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 신발은 벌써 생명을 다 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만신창이가 된 아들의 신발에 감정이입이 될 정도이니 어떤 수준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으리라.

최근에 아들에게 새 운동화를 사줄 겸 쇼핑몰에 갔었는데, 매장에는 재활용 섬유를 사용했다고 표시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똑같은 스타일의 운동화인데 재활용 섬유 제품이 그렇지 않은 제품에 비해 색상은 조금 어두운 편이었고 가격은 더 높았다. 아들이 재활용 섬유로 만든 신발을 고르길래 뭔가 생각이 있는 소위 착한 선택을 한 것 같아 흔쾌히 사주었다. 물론 재활용 섬유로 만든 운동화를 신는다고 해서 특별히 그 수명이 더 오래 갈 거라는 기대는 애초부터 없었지만 말이다. 다음 날 회사 집무실에서 기업들의 '그린워싱 (Green Washing)'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문득 어제 산 아들의 신발이 생각났다. 표시·광고한 것처럼 실제로 신발의 대부분을 재활용 섬유로 만든 게 맞을까? 혹시 소비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실제 보다 과장해서 광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반대로 이 운동화를 만든 기업이 환경을 위해 재활용 섬유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그 진정성이 소비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일까?

그린워싱이란 녹색(Green)과 세탁(Washing)의 합성어로,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가치를 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신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친환경적으로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 등을 말하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그린워싱 관련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근거로 각각 기업의 그린워싱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

(1) 거짓 과장의 표시·광고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의 과장, 환경 관련 인증마크의 무단 사용 등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표시·광고하는 행위

(2) 기만적 표시·광고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사항을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 개선 활동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어느 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른 부분에도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3)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

비교 대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거나, 비교 대상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비교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4) 비방적인 표시·광고

타사 제품을 비방하거나 단점을 부각시켜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비방하는 행위

환경관련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공정위 지침은 진실성, 명확성, 상당성, 실증성, 전과정성, 구체성, 완전성 등 7개의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즉, 표시·광고의 내용과 표현 및 방법이 사실에 근거하고 명료 정확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환경성 개선의 정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류나 신발을 만드는 패션업계에서도 그린워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브랜드들이 에코, 지속가능성, 친환경 소재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하여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뿐만 아니라 제품의 일부분만을 친환경적으로 제작한 후 전체 제품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거나, 타사의 동종 제품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것도 그린워싱에 해당한다. 모두 앞서 언급한 표시·광고의 일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글로벌 패션업계에서 발생한 그린워싱 클레임의 사례를 보자. 먼저 H&M은 "Conscious Collection"이라는 이름으로 친환경 패션 라인을 홍보하면서 몇 차례 그린워싱과 관련된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다. 소송에서 원고 측은 H&M이 Conscious Choice 제품들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것으로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하였다. 더구나 Conscious Collection 제품들은 일반제품 보다 비싸게 판매되었는데, 이를 두고 원고 측은 H&M이 실질적인 환경적 효용을 주지 않는 제품을 마치 그러한 효용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스포츠 의류를 판매하는 아디다스(Adidas)는 해양 환경 보호 비영리 환경단체인 Parley for the Oceans와 협력하여 바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신발과 의류를 출시하고 이를 자사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 및 소비자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아디다스가 광고하는 것과는 달리 친환경성이 크지 않으며, 잘못된 광고가 소비자들을 오인하도록 조장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디다스가 한 광고와는 다르게 Adidas x Parley 제품에 사용된 "해양 플라스틱"이 실제로는 해양에서 수거된 것이 아니라 해안가와 해변에서 수거된 것임이 밝혀져, 제품이 "해양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는 브랜딩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린워싱에 관한 이러한 발견은 기업의 환경 캠페인의 효과와 진정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패션 산업에서 더 많은 투명성과 진정한 지속 가능한 관행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들의 운동화 이야기로 시작한 글이 기업의 그린워싱에 관한 내용으로 흘렀다. 지난 15년 동안 국내·외 많은 기업들의 환경, ESG, 탄소중립에 관한 자문을 해 오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대다수의 기업들이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쉽지 않은 과정임에도 마른 수건을 쥐어짜서 한방울의 물기라도 더 없애고자 하는 심정으로 고민하고 도전하는 기업들의 모습을 많이 봐 왔다. 부디 그 도전과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 더불어 그 성과를 정확히 공개하고 홍보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싶다. 그린워싱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업들이 그린워싱을 피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규제 당국의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성에 대한 표시·광고 시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친환경 노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를 통해 실제로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신뢰성을 유지해야 한다.

약력

김진효 외국변호사는 다양한 산업계를 대상으로 K-ETS를 비롯한 국내외 온실가스 규제 대응, 탄소중립 및 ESG 활동,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시장 진출, 탄소국경조정제 대응 분야에서 활동해왔습니다. 한국탄소금융협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환경, 에너지 인프라, 기업법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클래스X스톱모션 유튜버 클리커, **신규 광고 '모든 수업이 두클래스' 공개**

– 스톱모션 기법 활용해 수천 장의 사진으로 완성한 영상…공개 기념 이벤트도 진행

교육·출판 전문기업 동아출판의 교실 수업 지원 플랫폼 '두클래스'가 스톱모션 크리에이터·유튜버 클리커와 함께 한 신규 광고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영상 '모든 수업이 두클래스'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위해 두클래스에 접속하자 밝게 빛나는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시작한다. 화면 속에 빠져든 선생님은 두클래스의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만나며 수업 준비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스토리로 전개된다.

이번 광고는 4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클리커'와 콜라보로 탄생했다. 모든 장면은 스톱모션 기법을 활용해 수천 장의 사진으로 만들어졌다. 두클래스의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레고를 활용해 환상적으로 표현,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한다. 영상 속에서는 문학 수업 자료 플랫폼 '문학관', PPT부터 게임까지, 디지털 수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수업 콘텐츠 제작 도구 '캔버스', 리포트를 품은 디지털 학습지 '워크북'을 비롯해 맞춤형 수학 학습 관리 솔루션 'AI 출제마법사', 자료가 가득한 '역사 특별학습', 수학 디지털 교구 '알지오매쓰'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다.', '두클래스와 함께라면 어떤 수업도 재미있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두클래스는 '모든 수업이 두클래스' 영상 공개를 기념해 두클래스 교사 회원을 대상으로 영상 시청 후 유튜브에 댓글을 남기고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선물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영상 시청 이벤트 종료 후에는 두클래스의 세상을 레고로 직접 만들어 보는 '나두클리커' 이벤트도 전개할 예정이다.

동아출판 관계자는 "두클래스는 최근 선생님의 사용성에 맞게 사이트를 전면 개편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론칭했다."며 "새로워진 두클래스와 다채로운 서비스를 재미있게 알리고자 클리커가 함께 작업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두클래스에서는 '어린이날 이벤트', '스승의 날 이벤트', '출석체크 이벤트' 등 풍성한 경품을 내세운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두클래스와 스톱모션 유튜버 클리커와 함께한 신규 광고 영상 '모든 수업이 두클래스'는 두클래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동아출판 보도자료

동아출판 '초능력', 동아맘카페서 **'동아맘 초능력 찾기' 이벤트 전개**

교육 출판 전문기업 동아출판의 초등 영역별 학습 브랜드 〈초능력〉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동아맘 초능력 찾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되는 '동아맘 초능력 찾기'는 우리 가정을 지키는 엄마에게 필요한 초능력을 찾는 이벤트다. 한 달에 한 번 랜덤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초능력, 손가락을 튕기면 온 집안이 깨끗해지는 초능력 등 테스트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초능력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동아맘카페 이벤트 페이지에서 '동아맘 초능력 찾기' 테스트 완료 후 결과를 캡처해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로 남기면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풍성한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기념해 5월 14일부터 2주간 학원 선생님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선생님을 위한 맞춤 강의 지원 서비스 〈T동아〉의 이벤트 페이지 내에서 선생님이 가장 가지고 싶은 초능력을 선택하고 댓글로 이유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한편, '초능력' 시리즈는 예비초(6~7세) 및 초등 대상으로 영역별 기초 학습의 힘을 키워주는 교재다. 〈2022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개정판이 작년 12월 출간되었으며, 맞춤법+받아쓰기, 구구단, 시계·달력을 비롯한 초등 영역별 기초 학습을 효과적으로 다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알려졌다.

동아출판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초능력〉 시리즈가 제공하는 이벤트와 함께 소소한 즐거움을 경험하시길 바란다.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는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끝없는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아출판은 한세예스24홀딩스의 자회사로, 교육 콘텐츠 전문 기업이다. 다양한 에듀테크 기업과 협업해 AI 디지털교과서 및 교사 지원 서비스 개발에 매진해 보다 향상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동아출판,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대비한
개인맞춤형 진단테스트 'AI진단' 오픈

– 동아출판 교실수업지원 플랫폼 두클래스 통해 중등 수학용 AI진단 부터 오픈…교사들로부터 호평

교육 출판 전문기업 동아출판은 교실수업 지원 플랫폼 두클래스를 통해 개인 맞춤형 수학 진단 평가인 'AI진단'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동아출판은 지난 4월 말,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AI 학습 콘텐츠 추천 솔루션 전문기업 라이브데이터와 함께 AI 기반 맞춤형 진단 평가 및 실시간 튜터 시스템을 두클래스에서 선보였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AI진단 평가를 실시해 집체교육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학급의 종합 결과를 확인하고, 수집된 학습데이터로 개별화된 학습코칭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동아출판이 오픈한 AI진단은 AI 디지털교과서의 핵심인 AI 진단평가, AI 튜터, AI 보조교사 기능들이 포함됐다. 두클래스 이용 교사와 학생들은 AI진단을 통해 학습 수준 자동 분석, 학급별·학생별 분석 리포트, 실시간 모니터링 및 AI 그룹별 코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는 중등 수학 과정만 오픈하였으며, 점차 서비스 대상과 과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두클래스 AI 진단은 라이브데이터가 개발한 수학 지식맵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지식 상태를 추적한다. 동아출판에 따르면 지식맵을 통해 학생들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관련된 선수 개념들을 점검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자동 분석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 수준별 맞춤 코칭이 가능하며, 교사 업무 부담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동아출판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해온 AI 기술을 바탕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기술 고도화에 매진하겠다"라며, "향후 AI 디지털교과서에도 차별화된 진단 기능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동아출판은 한세예스24홀딩스의 자회사로, 교육 콘텐츠 전문 기업이다. 다양한 에듀테크 기업과 협업해 AI 디지털교과서 및 교사 지원 서비스 개발에 매진해 보다 향상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동아출판 '두클래스X다했니
활용 계획 콘테스트 시상식' 성료

– 총 30명 선정해 상패와 상금 수여… 대상은 '다했니? 다했어요!' 공인강사로 위촉

교육 출판 전문 기업 동아출판이 18일 동아출판 본사 9층 교육장에서 '두클래스X다했니 활용 계획 콘테스트'의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두클래스X다했니 활용 계획 콘테스트'는 동아출판의 교실 수업 지원 플랫폼, 두클래스의 교수·학습 자료와 현직 교사가 만든 올인원 교육 관리툴인 '다했니'를 유기적으로 기획하여 교수·학습 효과를 높인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콘테스트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초·중·고등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과 수업, 학급 및 동아리 운영 분야와 두클래스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인 캔버스, 워크북 분야 등 초중고 10개 분야에서 다수의 활용 계획안이 출품되었다. 출품된 '두클래스X다했니 활용 계획안' 중 총 30명의 교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에는 수상 교사 및 참석 교사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각 분야별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 부상을 전달했다. 시상과 함께 두클래스의 교과 자료를 활용한 교과 학습 지도(프로젝트, 거꾸로 수업 등)에서의 활용 사례, 학급 및 동아리 운영 등 학생과의 중·장기적인 활용 사례, 두클래스의 신규 서비스인 '캔버스', '워크북'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후 다했니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전송한 사례 등을 참석 교사에게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대상을 수상한 조윤호 자유초등학교 수석 교사는 "두클래스와 다했니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성취도가 크게 향상되는 것을 경험했다."면서, "두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계획과 사례를 공유할 수 있어 기뻤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교사로서 매우 효과적인 교육 지원을 받은 기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두클래스와 다했니를 활용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 혁신적인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아출판은 다양한 에듀테크 기업과 협업해 AI 디지털교과서 및 교사 지원 서비스 개발에 매진해온 콘텐츠 전문 기업이다. 최근에는 동아출판의 교실 수업 지원 플랫폼을 개편하고, 디지털 학습지 '워크북', 수업 콘텐츠 저작 도구 '캔버스', 문학 수업 플랫폼 '문학관' 등 다양한 서비스를 론칭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현직 교사가 만든 올인원 교사 전용 에듀테크 '다했니? 다했어요!'와 제휴를 맺고 정식 서비스를 오픈, 두클래스에서 다했니 계정을 연동하여 두클래스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동아출판, 구글 포 에듀케이션과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디지털학습지 '워크북' 소개

–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앞두고, AI디지털교과서 관련 협력 방안 별도 논의

동아출판은 구글 포 에듀케이션과 함께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교실수업 지원 플랫폼 〈두클래스〉의 디지털 학습지 서비스 '워크북'을 소개한다. 동아출판은 구글클래스룸의 애드온 기능을 통해 '워크북'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혁신적인 학습지원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오는 6월 2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에서 진행되는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는 국내외 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교육 박람회로, 새로운 교육 기술과 트렌드를 소개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례를 공유하는 장이다. 동아출판은 이번 박람회에서 구글 포 에듀케이션과 협력하여 동아출판의 초중등 영어 교과서를 활용한 교사 연수를 진행하는 한편, '두클래스의 인기 서비스 중 하나인 〈워크북〉과 구글클래스룸을 연동한 에듀테크 서비스를 선보인다. 지난해 9월 오픈한 '워크북'은 교사가 문항 저작 도구를 활용해 다양한 유형의 과제를 만들어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워크북'은 PC뿐만 아니라 태블릿/모바일에서 이용 가능해 학생들은 기기에 관계없이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반별, 학생별, 문항별 상세한 리포트도 제공해 온라인 평가 도구로서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동아출판 관계자는 "두클래스를 사용하는 초, 중, 고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금까지 개발된 워크북 콘텐츠는 약 7,000개, 공개된 워크북 콘텐츠는 약 1,500개이며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워크북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구글 클래스룸과 연동해 학습관리 기능을 차별화한 것도 특징이다. 구글 클래스룸은 국내외 1억 5000명이 넘는 교사와 학생이 사용하고 있는 LMS 서비스다. 교사들은 워크북에서 만든 디지털학습지를 구글 클래스룸에 바로 게시하고,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지난 5월 28일에는 구글 포 에듀케이션 관계자들이 동아출판 본사를 방문하여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양사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AI디지털교과서 관련 협력 방안과 구글클래스룸 애드온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논의되었다.

한편, 동아출판은 한세예스24홀딩스의 자회사로, 1945년 설립하여 80년 가까이 초·중·고등학교 교육 콘텐츠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온 교육 콘텐츠 및 서비스 전문 기업이다. 한세예스24그룹은 지주사인 한세예스24홀딩스를 중심으로 한세실업, 한세엠케이, 예스이십사와 동아출판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DONG-A QUIZ

가랑잎이 ☐☐ 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속담 모음집 부록을 제공하는 <동아 초등 새국어 사전>
아래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동아 새국어 사전
정답 보기